

대통령실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두고 與野 온도차

민주당 “연구자들에게 진정한 사과 없어”

국힘 “윤 정부, 과학 R&D 환경 개선 진심 확인”

대통령실이 3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전지역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차를 보였다.<관련기사 2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에서 “R&D 예산 증액은 환영 하지만 예산규모도 시기도 없어 선거용이라는 의심을 겪을 수 없다.”면서 “지난해 R&D 예산 삭감 당시 대통령은 과학계를 ‘카르텔’이라고 비난하며 폭력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 근거 없는 비난으로 연구자들의 자존심을 짓밟았으며, 과학계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는 행위였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R&D 예산대폭 증액을 발표하면서도 지난해 R&D 예산 삭감의 이유로 지목했던 과학계 카르텔에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이나 사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과학계 비리온상처럼 여겨졌던 카르텔이 해결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렇다 저렇다 설명도 없이 R&D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 몇 개 월만에 카르텔이 해결됐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다. 여전히 현장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은 물론 연구자들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면서 “R&D 예산 증액이 현장 연구자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것에 대해 사과도 없이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율려 “대통령실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과학기술을 걱정한다면 과학자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지 말고 현장의 연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면서 “연구자들의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것이 진정한 R&D 예산 증액”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대통령실의 발표로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과학 R&D 환경 개선에 진심인지 잘 알 수 있다.”

이정복 기자

서천군, 제79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개최

충남 서천군이 3일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내나무를 갖고·심고·가꾸기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식목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비인면 성내리 일원에서 300여명의 각급 기관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여자들은 비인면 성내리 산3-1번지 내 2ha 규모에 낙엽송 6000본을 심었다.

김기웅 군수는 “군민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면서 나무와 숲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산림자원 육성을 통해 꽤적인 생활환경을 조성과 온난화 해결의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천군은 올해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15㏊의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녹지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정복 기자



늘봄학교 시행 한달만에 100곳 늘어… 참여 학생 13만6000여명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봐주고 봉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3월 한 달간 100곳 가까이 늘어 전국 2840여곳으로 확대됐다. 참여 학생도 1만4000여명 증가해 13만6000명이 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

이 담긴 2024년 늘봄학교 참여 현황을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이번 1학기 정부 예산처(2000개교)보다 37% 많은 2741개교에서 시작됐다. 현재는 충남·전북·경북에서 약

100개 학교가 더 참여해 총 2838개 학교에

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4월 중으로는 서울과 광주가 늘봄학교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어 전체 초등학교의

48%가 1학기 늘봄학교를 운영할 것으로 관

족된다. 오는 2학기에는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처음에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은 정책이 현장에 안착되고 있다.”며 “그간 돌봄 공백 해소의 목적으로 사교육을 이용했던 가정에 선 교육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늘봄학교 참여 학생은 지난 4월 대비 1만 4000명이 증가했다. 현재 2838개 초등학교의 1학년 학생 중 74.3%인 13만6000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하고 있다.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도입되는 올해 2학기에는 전체 초등학교 1학년의 74.3%인 약 25만8000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수도 증가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는 1만900명에서 1

만 7197명으로 한 달 만에 약 50%가 증가했다. 이 중 81.3%가 외부 강사이고, 18.7%는 퇴임하는 교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전북, 경남, 제주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가 100% 외부 강사로만 구성됐다. 경기는 58.1%가 외부 강사이고 41.9%가 교원으로 구성되는 등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프로그램 강사 구성 현황은 상이한 상황이다.

전국 2838개 늘봄학교에는 1개교당 평균

1.3명의 행정 전담인력이 배치돼 있다.

기간

제교원은 2168명, 기타 행정인력은 1466명

으로 총 3634명이다.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실무

직원이 배치돼 늘봄 신규 행정업무와 기존의 초등 방과후와 돌봄과 관련한 행정업무

를 모두 전담하게 된다.

정부는 늘봄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회적 협력을 이끌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늘봄학교 현장에 4차례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관련 회의도 개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17개 시도교육청에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늘봄학교 이용 만족도 등을 살피고 문제점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5월부터는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과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는 2학기 준비에 힘을 쏟을 것이다.

이 부총리는 “늘봄학교 성공의 핵심은 질 좋은 프로그램 제공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늘봄학교에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

‘포트홀 위험’ 민원에 대전시의회 ‘신속 보수’

대전시의회(의장 이상래)에 올해 1분기 동안 접수된 민원 가운데 도로교통 분야 민원이 가장 많았다.

대전시의회가 올해 1분기(1~3월) 총 29건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주정차 단속, 시내버스 노선, 신호등 시간 조정, 횡단보도 설치, 해방기 도로 파임(포트홀) 보수 등 도로

교통 이용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약 4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교육복지 분야 민원(약 17%), 경제과학 분야 민원(약 14%)이 주를 이뤘다. 나머지는 주택건축, 문화관광, 체육건강 관련 민원들이다.

반려동물공원, 동물보호센터 등 반려동

물에 대한 민원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대전시의회는 지난 제276회 임시회에서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에 나섰다.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사업 등 길고양이 관리에 필요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해 시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시민에 귀 기울이고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 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해가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

2024. 4. 25(목) - 28(일) | 대전 엑스포시민광장 및 엑스포과학공원 일원



‘세상에서 가장 큰 연구실’

대통령실,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 큰 폭 늘리고, 혁신선도형 사업 집중 투자

“내년 ‘R&D 예산’ 역대 최고 수준 편성”

대통령실은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큰 폭으로 늘리고, 혁신선도형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상우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비서관은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 R&D 지원 방식 개혁을 원수해 나가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R&D 예산 복원은 아니라 는 입장이다. 박 수석은 “R&D다운 R&D로 거듭나는 것이 정부 R&D

예산 증액을 위한 전제였다”며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이 아니라,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선으로 바꿔탈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국가 R&D 사업을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2024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14.7%, 상사 최대 폭으로 삽감되자 과학기술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R&D를 R&D답게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적시 신

속 지원 ▲투명한 연구환경 ▲글로벌 개방과 연대 ▲혁신·도전 R&D 및 인재 양성 등을 전략으로 제시했다.

박상우 수석은 구체적으로 R&D 예비타당성조사의 획기적 개선, 연구자 피드백을 반영한 평가위원 마일리지 및 인센티브 도입, 부처별 R&D 지출한도 탄력 운영, 혁신·도전형 R&D에 1조원 투자, 한국형 스타이 펠드(Stipend·연구생활장학금) 도입 등을 언급했다.

그는 “따라불기식 연구에서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 혁신선도형 R&D 사업에 내년에 1조원을 투자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젊은 연구자가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공계 대학원생 대상 한국형 스타이어멘드를 도입하고 신진 연구자의 정착, 연구비 지원 등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복기자



대천고등학교 동문모임장동혁 지지선언

보령시 대천고등학교 출신 동문들이 모여 국민의힘 장동혁(보령시 청원군)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대천고 동문 지지모임은 “보령시 발전과 지역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를 적극 지지할 것을 선언한다”며 “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울리아는 “장 후보의 정책이 실행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동문들의 지지에 회답하며 “보령시 청원을 위해 수도권과의 교육의료복지 등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2대 국회에서 관련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4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4월 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할 수 있어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4월 4일부터 선거일인 4월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화한 여론조사가 공표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면,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실시한 것임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총 10명으로 김현미, 김동빈, 김효숙 의원을 비롯하여 재정 및 회계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겸비한 민간위원 7명(세무사, 회계사, 전직공무원 등) 등으로 구성되었다.

김정환기자

세종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는 3일 의장실에서 지난 제88회 임시회에서 선임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회를 대상으로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김현미, 김동빈, 김효숙 의원을 비롯하여 재정 및 회계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겸비한 민간위원 7명(세무사, 회계사, 전직공무원 등)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결산검사는 4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시청과 교육청에서 진행된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채권·채무, 재산·기금 등이 관련 법령이나 회계 절차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등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해서 건전성과 효율성을 검사할 예정이다.

이순열 의장은 “결산검사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검사해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만큼 위원분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심하게 검사하여 시와 교육청의 재정이 내실 있게 잘 운영되도록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와 교육청의 예산이 시민을 위해 잘 사용되었는지 꼼꼼하게 검사하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수현, 공주대 찾아 ‘꿈이 있는 청년 공약’ 발표

공주대 신관캠퍼스 찾아 학생들 만나 공약 설명·지지 호소

올해 1분기 민원 29건, 현장 의정으로 쾌속 처리



과, 주정차 단속, 시내버스 노선, 신호등 시간 조정, 횡단보도 설치, 해빙기 도로 파이프(포트홀) 보수 등 도로교통 이용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약 4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교육·복지 분야 민원(약 17%), 경제·과학 분야 민원(약 14%)이 주를 이뤘다. 나머지는 주택·건축, 문화관광, 체육·건강 관련 민원들이다.

반려동물공원, 동물보호센터 등 반려동물에 대한 민원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대전시의회는 지난 제276회 임시회에서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에

나섰다.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사업 등 길고양이 관리에 필요 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해 시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전시의회는 민원들을 관련 기관과 해당 상임위를 통해 사실 관계와 현장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처리기한 안에 신속하게 제공했다.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시민에 귀 기울이고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 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한동훈 위원장, 신범철 천안(갑) 국회의원 후보 지원유세

“준비된 신범철에게 맡기면 천안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것”



지키며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들과 범죄자들 간의 전쟁”이라며 “놓치면 살고 흘어지면 죽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는 실력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한 위원장은 “준비된 신범철에게 천안을 한 번 맡겨봐 달라”라며 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신 후보가 당선된다면 “천안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며 “그 옆에 제가 든든하게 지키고 서겠다”라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무조건 투표장에 가셔서 국민만 보고 찍어달라”며 “범죄자들을 이 훈련한 정치판에서 치워버리고, 여러분을 위해 민생과 정치를 개혁하겠다”는 메시지를 끝으로 지원유세를 마쳤다.

신범철 천안갑 국회의원 후보

는 “지난 4년간 천안갑 당협위원장과 국방부 차관으로서 지역 및 국가 현안을 바라보는 실력을 키워왔다”라며 “반드시 승리하여 천안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우 이렇게 정치권에 전과자들이 많은 것이다”며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고 현 시점의 문제를 꼬집었다.

한편, 이날 청룡지하차도네거리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 한 위원장과 신 후보를 응원했다.

지지자들은 한 위원장과 신 후보의 이름을 연호하며 꽂다발을 전달하는 등 환호했고 신 후보는 한 위원장이 떠난 후에도 끝까지 남아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정복기자

이순열 의장은 “결산검사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검사해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만큼 위원분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심하게 검사하여 시와 교육청의 재정이 내실 있게 잘 운영되도록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와 교육청의 예산이 시민을 위해 잘 사용되었는지 꼼꼼하게 검사하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수현, 공주대 찾아 ‘꿈이 있는 청년 공약’ 발표

박수현, 공주대 찾아 학생들 만나 공약 설명·지지 호소



는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2일 오후, 축제가 한창인 공주대 신관캠퍼스를 찾아 학생들을 만나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가 이날 발표한 ‘꿈이 있는 청년 공약’은 ▲국립대·전문대 등록금 전액무상 ▲월 20만 원 대학생 기숙사 확보 ▲영화·도서·공연 관람 청년문화페스 ▲월 3만원 청년교통페스 ▲군장병 교통비 50% 할인 등이다.

또한, 공주·부여·청양 지역

청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청년스마트팜 클러스터 조성 ▲청년후계농 육성 ▲지역 문화예술시설 확충(음악공연장) 등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청년을 위한 투자가 곧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청년들이 현실에 짓눌리지 않고 마음껏 꿈꿀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세대가 투표해야 바뀐다”며 오는 4월(금), 5월(토) 진행되는 사전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공주·정성범기자

제22대 국선 투표 인증샷 등 유의사항, 유·무효 투표안내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가능,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하면 처벌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기간(4.5~6.) 및 선거일(4.10.)을 앞두고 투표 인증샷 활용 시 유의사항과 투표 유·무효 예시 등을 안내했다.

▣ 투표 인증샷은 (사전)투표소 밖에서 가능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은 (사전)투표소 밖에서 활용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사전)투표소 밖에서 활용하여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하여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권 유권자를 활용하여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사전)투표지를 활용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불가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166조의 2 투표지 등의 활용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인에서 (사전)투표지를 활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활용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사전)투표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 엄정 대응

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사전)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찰 경찰서와 협

조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사전)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 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 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투표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투표 시에는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한다. 특히,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작으므로 기표할 때 20이상의 정당 랭킹에 걸쳐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한 후보자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 투표로 인정된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하여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 된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선거인은 투표 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 또는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 등이 인정된다.

방한일 의원, 일상 속 한복 착용 장려 나선다

‘충청남도 한복 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총남도의회가 일상 생활에서 한복(韓服)을 자주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전통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한복 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을 지난달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한복의 개발보급 및 착용 조례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한복 착용자가 공공시설을 이 조례안을 밝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구(을) 양홍규 후보가 ‘저출산 공동대책위원장’으로 위촉한 유지선, 정재

충남도,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 실현

공공 최초 '주4일 근무제' 도입... 도·도 공공기관 2세 이하 자녀 둔 직원 주1일 재택근무 의무화



민선8기 힐센충남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을 실현한다. 또 사교육비 문제 해소를 위해 공립학원을 운영하고, 84m(약 34평형) 아파트를 6년 전 가격으로 파격 분양하는 '충남형 리브리케이션'에 대한 임신·출산 기구 특별공급 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이 키움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해선 공공 최초로 주4일 근무제를 도입·시행한다.

▲국가소멸 위기 "마지막 골든타임 지키자"

김태흠 지사는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충청남도 저출산 극복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형 풀케어(Full Care)돌봄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충남 역시 0.84명으로 추락하며 국가소멸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지난 18년 동안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380조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백화점식 정책 니열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문제의식도 깔려있다.

현재를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대책을 도정 핵심과제로 설정, 총력 대응을 통해 출산율 반등 기제를 마련하며 2026년 출산율 1.0을 회복한다는 것이 도의 목표다.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 전 시군 설치

김 지사는 우선 "0~5세 돌봄 사각지대인 평일 아간과 주말·휴일 영유아 보육을 위해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을 전 시군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전담 보육시설은 접근성이 좋은 기존 어린이집 시설을 활용하되, 인구 밀집 지역은 도가 아파트를 매입해 시설을 설치하고, 가정어린이집의 전담시설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올해 시군마다 1개소 씩, 총 25개소 이상 설치하고, 추가 수요에 따라 시설을 확대해 "충남에서는 부모가 희망하는 경우 언제 든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 김 지사의 설명이다.

본격적으로 확대될 경우 학교 시설로는 감당이 어려운 '돌봄' 관련 대책도 내놨다.

김 지사는 "주민자치센터, 마을도서관 등 지역 내 가용 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돌봄학교의 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퇴직교사 등 어르신을 활용한 돌봄 강사 인력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디딤돌봄센터 등 돌봄 시설 운영 시간을 평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 방학 기간에도 밤 10시까지로 연장해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전부 해소한다.

김 지사는 "종교단체 시설도 돌봄에 적극 활용해 아이들을 어디서나 듣는하게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유명 학원 위탁 '공립학원' 남부권에 설치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습권 보장에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

김 지사는 "부모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립학원을 운영하겠다"라며 "남부권 희망 시군에 우선 설치해보니, 서울 유명 학원이 위탁 운영토록 해 최고 수준의 고품질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주거 문제 해법을 위해서는 충남형 리브리케이션 등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확대 카드를 꺼냈다.

김 지사는 "저출산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주거 문제"라며 "우리 충남은 과감하게 임신 및 출산 기구에 대한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 55%에서 10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신·출산 기구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젊은층이 선호하는 지역 도유지 등 공공용지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0~2세 자녀 둔 직원 주1일 재택근무 의무화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정착과 출산·가족에 대한 인식 전환도 견인해 나아간다.

도는 우선 일·육아 병행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최초로 사설상의 주4일 근무제를 시행한다.

김 지사는 "도청과 소속 공공기관의 0~2세 자녀를 둔 직원의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해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 육아를 성과로 인정, 육아 휴직자에게 A등급 이상의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에서도 가점을 부여한다.

민간기업과는 직장 분위기 비꾸기 캠페인을 펼치고, 아이 키움 배려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의 육아지원금도 지원한다.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463억 원이 필요하다.

이 중 기준 추진 중인 주택 보급 정책을 제외하면, 신규 예산은 3년 간 700억 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현금 지원·규모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김 지사는 이날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정책 제안도 내놨다.

먼저 출산 시 국가와 지자체가 제각각 꾸고 있는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 필요성을 끼내들었다.

김 지사는 "현재 출산 시 국가 이외에 지자체가 현금을 잘게 쪼개주고 있는데, 이는 체감도가 떨어져 출산율 제고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으며, 지자체 간 유인책은 실질적인 출산 증가가 아닌 인구 빠오기 현상만 불러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면 충분한 혜택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현금성 지원을 통합하고, 대상과 금액 기준 역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부부가 미혼자보다 불이익을 보는 현행 제도에 대한 정비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요즘 인기가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미혼 1인 소득 기준과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1억 3000만 원 이하로 같은 자녀를 출산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대출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미혼보다 기혼의 혜택이 크도록 결혼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프랑스식 '등록 등기증' 제도 도입 제기

프랑스식 '등록 등기증' 제도 도입과 이민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필요성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OECD 국가의 혼외 출산 비중은 41.9%이지만, 우리나라 2.3%에 불과한데, 결혼 전에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식 등록 등기증 제도 도입을 통해 동거 가족에게도 혼인부부와 동일한 세금과 복지 혜택을 부여해 결혼 부담 없이 아이를 갖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민 정책에 대한 전향적 검토 제안은 출산율 제고만으로는 저출산에 따른 충격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내놨다.

김 지사는 "출산율이 반등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유지를 위해서는 이민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이민정을 조속히 설립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한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김 지사의 뜻이다. 결혼·출산 관련 증여세 공제 금액 확대도 정책 제안으로 꺼내들었다.

김 지사는 "60세 이상의 순자산은 3800조 원이 넘어 여대 최고 수준이지만, 결혼 출산이 활발한 청년층의 순자산은 844조 원에 불과하다"라며 "결혼을 하려는 청년층의 각종 부담이 큰 상황에서 세대 간 자산 이동에 상속 증여세가 장벽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평균 결혼 비용이 3억 원을 훨씬 넘는 점을 감안해 결혼·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의 세금 감면액을 현재 양가 합산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김정환 기자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



●정정●

대전교육정책연구 지원단 위촉식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 4일
오후 3시 30
분 대전 교육
과학원 구원
에서 열리는
2024 대전교육정책연구 지원
단 위촉식 및 발대식에 참석.

나무나누어주기 행사



박희조 동구청
장 = 4일 오전
10시 성남다
목체육관에
서 열리는 제
79회 식목일
맞이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에 참
석.

소외계층 지원 업무협약식



서철모 서구청
장 = 4일 오후
2시 서구청 갑
천누리실에서
열리는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
업무협약식에 참석.

업무협약식



정용래 유성구
청장 = 4일 오
후 3시 구청
중회의실에
서 열리는 일
상돌봄 서비
스 제공기관업무협약식 참석.

공약사업 및 핵심과제
추진상황 점검 또 점검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3일 구청 대
회의실에서 박희조 동구청장 주재로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핵심과제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주요 사업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는 구민과의 약속인 공
약사업과 동구 브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한 사업들로 신정된 핵심과제의 그
간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부진한 사
업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청장의 민선 8기 공약사업은 5대
분야 49개 사업이며, 현재까지 완료 9
건정상 추진 40건으로 전체사업이 정
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구는 올해 초 동구의 숙원사업
이자 최대 역점사업 중 하나인 대전역
세권 복합구역 개발의 사업시행인가
완료와 최근 삼정지구 신규 산단 조성
지구 결정 등 민선 8기 최대성과를 내
며 동구 브네상스 시대로의 도약을 가
시화하고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공약사업 및 핵
심과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전 부서가 협력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추진상황 점검
을 통해 사업들을 꼼꼼히챙겨, 임기 내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구민과의 약속
을 성실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프로젝트 Y' 참여자 공통교육 개시

서구, 성공적 창업·시장 정착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사)대덕
이노폴리스벤처협회(협회장 김병
순) 주관으로 청년창업 토클브랜드
'프로젝트 Y' 참여자 공통교육을
오늘(3일)부터 개시한다.

올해 2년 차를 맞는 프로젝트 Y
는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와
창업 3년 이하의 초기 창업자를 대
상으로 성공적인 창업과 시장 정착
을 위한 맞춤형 인큐베이팅 사업이다.

이번 교육은 ▲비즈니스 모델관
리 및 판로개척 ▲지자체 및 회계관

지방세 체납액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시행

대덕구, 종이 송달 대비 43.5% 예산절감·납세 편의 증진·체납액 징수율 제고 등 기대



대덕구(구청장 최종규)가 대전
시 최초로 카카오톡 알림톡을 활용
해 체납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대덕구에 따르면 지방세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이번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활용해 종이
고지서를 발송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납세자의 납부
편의 증진을 위해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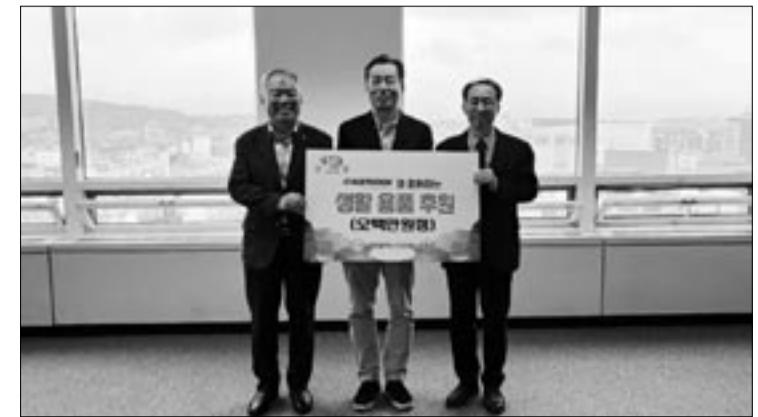
특히 구는 종이 송달 대비 예산
43.5%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주소 불일치로 인한
우편물 분실 문제 해소는 물론, 본
인인증을 통해서만 체납 고지서
및 안내문 열람이 가능해 개인정
보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또한 △카카오톡 △위택스
△가상계좌 △간편 납부 등 다양
한 수단으로 즉시 납부도 가능해
납세자의 편의와 행정업무 효율
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를 하반기부터 세외수입 체납
자, 환급금 안내문 등 세부 행정
전반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최종규 대덕구청장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예산과
자원을 절감은 물론, 체납액 징수
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며 "앞으로 더 쉽고
편리한 납세자 맞춤형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한국타이어, 대전시자원봉사연합회에 후원금 500만원 전달

생활용품 구입 전달될 예정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대표
표이사 이수일, 이하 한국타이어)

김주형 한국타이어 문화담당(가
운데)이 3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김영태 대전시자원봉사연합회장
(원쪽)에게 후원금 500만원을 전
달하고 전재현 대전시청 행정자
치국장(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
고 있다. 전달된 후원금은 대전지
역 자원봉사자들과 소외계층 어
르신들에게 생활용품을 구입해
전달될 예정이다.

김주형 한국타이어 문화담당
은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
한 나눔 활동을 펼치는 자원봉사
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린
다"며 "한국타이어 또한 지역사
회와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
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
했다.

송병배기자

동구, 중기부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 선정

중앙시장활성화구역 내 정원시장 선정
… 2년간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추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중소벤
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소상공인시
장진흥공단이 주관한 2024년 제2
차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중앙시장활성화구역 내 위치한
정원시장이 선정됐다고 3일 밝혔
다.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은
전통시장 점포의 온라인 입점, 온
라인 상품 발굴 및 사전 상담, 기

육 등이 추진된다.

또 2년 차 사업으로 생방송 스
튜디오 구축, 콘텐츠제작, 미디어
홍보 강화, 배송서비스 질 개선 등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를 통해 시
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
획이다.

강신화 정원시장 상인회장은
"온라인 상품 판매 기반 구축 등
전통시장의 온라인 접근성 향상
으로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변
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정원시장
의 디지털 전환을 기록해 전통시
장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가겠
다"고 말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정원시장
은 디지털 전통시장으로 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한 시장으
로 이번 사업을 통해 디지털 시대
에 도약이 되는 전통시장으로 발
전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전통
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및 고향사랑기부제
대전농협 '홍보 캠페인' 시행농협중앙회 대전본부(본부장
김영훈)는 지난 2일 제79회 식목
일을 기념해 서구 산작동 산 23-
1 일원에서 나무심기 및 고향사
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시행했
다.

신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과
농업인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고자 대전 농협 60여명 임직원
은 산벚나무와 산수유나무 100그
루 가량 심고,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변 환경 정화 등을 실시
했다.

또한 행시에 참석한 대전시민

을 대상으로 우리 쌀로 만든 떡을
간식으로 나눠 주며 우리쌀 소비
촉진 및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
인도 시행했다.

김영훈 본부장은 "제79회 식목
일을 기념해 우리 모두가 산과 땅
그리고 나무의 소중함을 인식하
고, 푸른 산을 보호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길 바란다"며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정착을
통해 농업인·지역민 소득 증대
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
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대전보훈요양원 '고무신 테라리움' 진행

요양원 입소어르신 정서지원 프로그램 원예활동

대전보훈요양원(원장 변미
아)은 지난 2일 식목일을 앞두고
식목일 맞이 특별 프로그램
인 '고무신 테라리움'을 진행했
다.

"고무신 테라리움"이란 어르
신들이 고무신에 식물을 심어 개
별적인 관리를 하며 정서적 안정
을 기울 수 있도록 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어르신의 우울증 예
방과 정서지원 강화와 더불어 요
양원 어르신들의 원예활동에 대

한 욕구를 반영해 특별히 아회정
원에서 진행했다.

대전보훈요양원은 어르신의
욕구를 반영한 정서지원 프로그
램을 활성화해 어르신들이 즐겁
게 입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
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변미아 요양원장은 "따뜻한 봄
날 코로나를 극복하며 예쁜 원예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가지
며 즐거운 시간이 되시면 좋겠
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임신사전건강검진 및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중구, 건강한 임신과 출신을 위해 이번 달부터 시행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김병인)
는 이번 달부터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사전건강
관리 지원사업'과 '냉동난자 사
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시행
한다고 밝혔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은 임신을 희망하는 예비부부사
실훈, 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와 부
인과 초음파(난소, 자궁 등) 검사
비를 최대 13만원 까지 지원하며,
남성은 정액 검사(정자정밀형태
검사비)를 최대 5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
원사업'은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대상으로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 원의 보조생식술 비
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중구보건소는 이외에도 임산부
대상 온라인 교육, 난임부부 및 고
위험임신부 의료비지원, 협진·
월분제 지원 등 저출생 문제에 적
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임산부
선물꾸러미와 애착인형키트를 지

원하는 프로젝트를 연중 진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
구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보건소
임산부실(042-288-8084, 8093)
로 문의하면 된다.

이경숙 중구 보건소장은 "저출
생 시대에 소중한 생명과 임산부
의 건강한 출산에 도움이 될 수 있
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
다"고 말했다.

큰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는 행사의 개선이 필요
하다는 내부의견에 따라 지난 3월
부터 그동안의 성과분석자료와
온라인 반응 등을 통해 과제를 설
정하고 △전문가 1:1 인터뷰 △상
인 등 관계자 FGI(집단심층면접)
△일반 주민 설문조사 등을 실시
하여 행사의 명칭, 기간, 프로그램
등 전 분야에 대한 중·장기적 추
진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등 개
선 용역을 추진해왔다.

김태선 기자

제15회 유성국화축제의 새로운 출발 시동

자문위원회 개최, 새출발에 필요한 사항 점검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3일
제15회 유성국화축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문창용
부구청장을 포함하여 11명의 위
원이 참석하여 '유성국화전시회'
로 진행되던 행사를 '축제'로 변
모시키기 위한 용역 중간 결과를
보고하고 질의응답 및 논의의 시
간을 가졌다.

구는 개선 용역 중간 결과와 검
토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 및

관계자에 대한 추가 인터뷰를
실시하여 4월말 최종 용역 결과
를 반영하고 올해 바로 도입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체계적
으로 검토하여 시행할 예정
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자
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유
성국화전시회'가 새로운 '축제'로
변모하는 밀거울이 될 것이다"며
"새롭게 변화할 '유성국화전시
회'가 지역민과 방문객들의 관심
과 기대에 부응하여 유성의 또다

김태선 기자

●정정●

민간방제단연합회 출범식



이용록 흥성군
수= 4월 오전
10시 홍동면
일원에서 열
리는 흥성군
병해충 민간
방제단연합회 출범식에 참석.

응급처치 일반과정 교육 추진



예산군 농업 기술 센터는 농산물 가공 센터 교육장에서 3일 안전한 농촌 체험 관광을 운영을 위한 필수 교육인 응급처치 일반 과정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관내 농촌 체험 농장 운영자 18명을 대상으로 농촌 체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소비자들이 안전한 농촌 체험을 하기 위해 주진됐다.

체험 관광 농장은 필수 교육 시간을 8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대한 적십자사 충남 지사 신용군 강사로부터 △응급 처치의 목적 및 필요성 △심폐 소생술 전과정 △상처 및 골절 처치 △갑작스러운 질병 대응법 등에 대해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농촌 체험 관광 연구회 송순단 부회장은 “따뜻한 계절을 맞아 체험객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체험교育 중 응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체험객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업 기술 센터 관계자는 “농촌 체험 농장 운영자들의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해 주기적인 응급처치 교육 추진과 농장주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 수료 운송자는 대한 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응급처치 일반 과정 수료증이 발급되며, 수료증은 2년간 유효해 매 2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예산 = 박제화 기자



여민전 가맹점·공실상가 입점

세종시 소상공인 금융지원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여민전 가맹점과 공실상가에 입점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 금융지원을 시작한다.

시는 3월 하루는, 세종신용보증재단과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1.7% ~ 2.0% 수준의 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하루는 행은 7억 원의 특별출연과 금리 우대를 지원한다.

세종신용보증재단은 105억 원까지 특별보증 및 심사완화 등을 시행한다.

또 업체당 최대 2억 원 한도, 보증기간 5년 내로 금리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은 이날부터 세종신용보증재단에서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세종시 관내 소상공인이며 1만 5,000개 여민전 가맹점과 61개 공실상가 입점 기업에 보증 한도 상향 등 우대가 적용된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이번 협약이 장기간 고금리·고리를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혜택 확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세종시 건축물에 ‘한글문화도시, 세종’ 입힌다

한글문화도시 조성 아이디어 공유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3일 건축 위원회 등 전문가들과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워크숍을 열고 건축물을 활용한 한글문화도시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후보지로 선정되며 한글을 도시 정체성으로 활용, ‘세계를 잊는 한글문화도시’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건축계획, 경관, 조경분야 전문가, 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 및 문화관광 재단은 문화도시 완성을 위해 민간 건축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 시에는 반곡동 복지커뮤니티센터, 보람동 광역복지센터 한글자음외벽 등 한글을 활용한 건축물 디자인이 적용돼 있으며 향

후 이를 확대해 한글문화 도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또 한글 활용 간판·의자·기로외벽 등 각종 시설물에도 한글을 활용한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을 포함한 건축물 건립과정에서 민관협력을 통해 한글문화 인식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는 특정 경관계획으로 한글문화도시 가이드

라인을 포함한 세종시 제3차 경관 계획을 마련해 운영할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워크숍 개최는 한글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한다”며 “우리시에 지어질 건축물 하나하나에 한글문화가 스며들고 나아가 거리 곳곳에 한글이 있는 도시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착한일터 82호 가입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이 지난 2일 세종시 착한일터 82호에 가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단 임직원들은 매월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기부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예산군, 군 계획 조례 개정

건축물 위 태양광 설치 기준 마련

예산군이 건축물 위 태양광 설치 등 무질서한 개발로 일조권, 안정성 및 도시·농촌 경관을 크게 해소하는 등 고질적 민원 해소와 앞으로 시설 설치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발 행위 허가 기준 등 관련 규칙 조례를 개정했다.

군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특정 건축물에 대한 높이, 배치 등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군 계획 조례 규정이 가능해졌으며, 이에 군은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2일 군 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 위 태양광 설치 시에는 평 지붕에는 옥상 바닥에서 높이 3m 이하, 설치 시경각은 36도 이내, 최대 높이의 3분의 1 이상을 부족 경계면에서 안쪽으로 이격해야 하며, 군 관계자는 “개정된 개발 행위 허가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일조권, 안정성 및 도시 농촌 경관 저해를 최소화해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산 = 박제화 기자

홍성군-한국생명복지재단 취약계층 복지 향상 ‘맞손’

취약계층 지원 위한 자매결연 체결

홍성군과 한국생명복지재단(이사장 송창익)이 취약계층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보장 증진을 위해 3일 자매결연을 체결하며 맞손을 잡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생명복지재단은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사업과 재난 대응을 위한 물품 후원 등을 적극 지원하게 되며, 점진적으로 후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군 또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재단과 연계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행정의 손길이 미쳐 닿지 못한 복지의 틈새

에 새 생명의 씨앗을 틔우고 계신 송창익 이사장님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홍성군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송창익 이사장은 “복지의 손길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생명복지재단은 2007년 7월 27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북한이탈주민, 희귀난치병 어린이,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자녀, 노숙인, 독거노인 등 우리 주변의 어



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여 사랑을 전하고 있는 단체이며, 재단의 봉사조직인 페란천사 홍성군지회(지회장 한효현)

현)가 홍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김정환 기자

예산군, 우기대비 도시공원 보완사업 추진

공원 내 배수 기능 개선 및 토사 유출 등 피해 예방

예산군은 본격적인 장마철(우기)을 앞두고 공원 내 취약 부문에 대해 종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보완·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2월 군은 도시 공원 조성 사업이 완료된 공원을 대상으로 우기 대비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원 내 배수 기능 개선 및 토사 유출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보완 및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잔디와 조경 수목 식재 등 공원 시설을 종합 보완하는 등 기

을 다행하겠다”고 말했다.



예산 = 박제화 기자

홍성군, 규제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설치 건폐율 완화

홍성군이 농·어업인의 소득창출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최대 40퍼센트 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홍성군 자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변경사항은 ▲주민의견 청취방법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건폐율 완화(20% 이하 ~ 40% 이하) ▲지구

용하는 지역으로 별도의 건폐율을 두지 않고 20% 이하로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군에서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구하여 지난 1월 법령에 반영됐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공원을 찾는 이용객의 안전 강화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군민이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

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

획법 개정 등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의 공공 복리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희재 도시재생과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지역 예전 및 주민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군민의 각종 규제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정환 기자

단위 계획구역 내 공익 목적 등의 기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및 수용하는 지역으로 별도의 건폐율을 두지 않고 20% 이하로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군에서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구하여 지난 1월 법령에 반영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1.7% ~ 2.0% 수준의 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하루는 행은 7억 원의 특별출연과 금리 우대를 지원한다.

세종신용보증재단은 105억 원까지 특별보증 및 심사완화 등을 시행한다.

또 업체당 최대 2억 원 한도, 보증기간 5년 내로 금리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은 이날부터 세종신용보증재단에서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세종시 관내 소상공인이며 1만 5,000개 여민전 가맹점과 61개 공실상가 입점 기업에 보증 한도 상향 등 우대가 적용된다.

“투표소별 대기시간 세종엔 앱으로 확인하세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 혼잡도 등 서비스 제공

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사전투표는 4월 5일~6일 이를 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세종시 관내 24곳의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되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세종엔’ 앱에서는 사전투표소 위치정보와 초정밀 버스도착정보,



김태선 기자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착한일터 82호 가입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이 지난 2일 세종시 착한일터 82호에 가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단 임직원들은 매월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기부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예산군, 군 계획 조례 개정

건축물 위 태양광 설치 기준 마련

예산군이 건축물 위 태양광 설치 등 무질서한 개발로 일조권, 안정성 및 도시·농촌 경관을 크게 해소하는 등 고질적 민원 해소와 앞으로 시설 설치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발 행위 허가 기준 등 관련 규칙 조례를 개정했다.

군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특정 건축물에 대한 높이, 배치 등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군 계획 조례 조례 규정이 가능해졌으며, 이에 군은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2일 군 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개정된 개발 행위 허가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일조권, 안정성 및 도시 농촌 경관 저해를 최소화해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산 = 박제화 기자

세종시 요식업 소스마트화 지원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등 경쟁력 확보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요식업 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상점 스마트화를 지원한다.

시는 3일 소상공인 시장진흥 공단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과 연계해 요식업 소에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서빙·조리로봇과 같은 스마트기술 도입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고 밝혔다.

양원식 보건복지국장은 “관내 요식업소에 스마트 기기 도입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덜고 노동 강도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요식업소들이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는 김태선 기자

예산군 2024년 일자리 대책 연차별 세부계획 수립·공시

우리/동/네

천안·아산↔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25% 지역화폐 환급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선도 모델

천안시, 자체 방송과 강의 요청 잇따라

천안시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방문과 강의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기점으로 파견해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천안시는 지난해 시범사업 자체방문으로 선정돼 방문 의료·재활, 구강 관리, 가사지원, 영양지원, 외출동행, 접수리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시설·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 성남시는 3월 천안시를 방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했다. 천안시는 노인의료돌봄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현장에서 축적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천안시는 오는 30일 충청남도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 성과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시에 거주하시는 모든 어르신들이 거주하던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천안시의 사업이 전국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충남도,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시스템 구축… 지역화폐 환급 시작

충남도는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1월 사용분부터 지역화폐로 환급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도민 교통비 지원사업에 따른 것이다. 도민의 정주 환경 민족도를 높이고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천안·아산시에서 서울·경기 간 정기승차권을 이용하는 천안·아산 지역민 중 수도권 통학 학생이거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주민이 대상이다.

사용한 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한도는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다.

환급 신청은 충남교통비지원 누리집에서 접수하며, 사용 시작일이 올해 1월부터면 신청할 수 있다.

회원가입 및 환급신청 시 주민등록 주소지가 천안시 또는 아산시 인지 여부와 철도 정기승차권 이용 여부는 온라인으로 연계해 확인할 수 있다.

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미리 준비해 신청해야 한다.

환급금은 매달 20일까지 신청받아 말일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거주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도는 광역 최초로 이번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2년간 사업 추진 후 효과성을 평가해 확대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으로 지원 대상과 지역 등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강철구 도 교통정책과장은 “교통비 지원 대상을 학생 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설정해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지역·대상을 확대하고자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새로 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대상자는 지원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적기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천안=김정환기자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민원

다발지역에 금연벨 설치

천안시 서북구보건소는 흡연 민원 다발지역인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과 삼성디스플레이 인근에 금연벨을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금연벨은 무선 송신장치로 금연구역 또는 공공장소에서 흡연자를 발견했을 경우 벨을 누르면 안내방송이 나와 흡연을 중지하도록 유도한다. 특정 시간대는 벨을 누르지 않아도 15분마다 금연벨 내부에 나온다.

서북구보건소는 이번 금연벨 설치로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등 갈등을 줄이고 금연구역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금연벨 설치지역의 민원 감소 여부 등 효과성을 분석해 금연벨 추가 및 이전 설치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적극적으로 금연사업을 발굴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흡연자의 금연 실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담배 연기 없는 건강도시 실현에 앞장 서겠다”고 전했다.

천안=이정복 기자

봄의 시작, 천안 원성천 벚꽃길 '문화가 흐르는 산책로'

3~7일 원성천 산책로에서 보이는 라디오, 경관조명, 버스킹 공연

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안동순)은 3월부터 7일까지 천안 원성천 산책로에서 2024 '문화가 흐르는 산책로'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벚꽃 만개 시기에 맞춰 원성천 산책로 1.5km 구간에서 ▲보이는 라디오 ▲버스킹 및 초청공연 ▲야간 경관조명이 운영된다.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은 천안 버스킹단

'씨앗(C-Arts)'의 버스킹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며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품격있는 불거리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예술부대 사업과 연계해서 운영한다.

이번 공연은 ▲5일 천안시 종남관현악단 ▲6일 뮤지컬 갤러리온서트 더 뮤즈 ▲7일 불후의 명곡 출연 등 성악가 김상진 신채림의 초청공연이 개최된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천안문화재단 문화가 흐르는 산책로'를 통해 행사 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며, 네이버 큐알코드로 사연과 신청곡을 접수 받고 있다.

안동순 대표이사는 “문화가 흐르는 산책로 행사를 통해 천안뿐만 아니라 전국 상춘객들의 방문을 유도해 천안의 봄을 대표하는 문화 명소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남기겠다”고 전했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 성성호수공원 빛으로 만난다…미디어아트 구축 본격화

성성호수공원 방문자센터 영상관 구축 및 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용역 착수



천안시농업기술센터, 능수쌀농촌지도자회 회원

서천의 국립생태원 방문

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운)는 3월 능수쌀농촌지도자회 회원 40여 명이 서천의 국립생태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원들은 5대 기후관을 관람하면서 텐소중립과 농업의 3대 고질 현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우쳤다.

능수쌀농촌지도자회는 하반기는 벼농사와 관련연구소, 시험장, 독농과 포장 등을 벤치마킹해 영농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김종업 능수쌀농촌지도자회장은 “이달 중순부터는 회원들이 농지리를 시작으로 올 일년의 농사를 시작한다”며 “정보 교환과 친목 도모 등 조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천안=김정환기자

천안시, 국가선양위원회 회의 열고 확대 지원

관외 전입세대까지 태극기 지급 확대

천안시는 가정용 태극기 지급 대상을 관외 전입세대까지 확대한다.

시는 지난 2일 ‘2024년 국가선양위원회 회의’를 열고 신혼부부에게만 지급하던 가정용 태극기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심의했다.

천안시 국가선양위원회는 김석필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공무원 4명, 시의원 2명으로 구성됐으며 국가의 게양일에 관한 사항, 국가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천안시복지재단, 함께하는 나눔문화 활성화

스페셜 데이 기부캠페인 진행

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이운형)은 시민과 함께하는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스페셜 데이 – 당신의 특별한 날을 기부로 기념하세요’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스페셜데이 기부 캠페인은 생일, 연애와 결혼, 임신과 출산 등 나만의 특별한 날을 기부로 기념하고, 후원금은 취약계층 이웃을 돋치는 의미있는 캠페인이다.

자세한 내용과 참여방법은 천안시복지재단 누리집 (<https://www.caf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책경영팀 (041-903-4478, 4480, 44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개소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와 재난대비·대응 위한 최상위 응급의료기관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개소했다.

지난 2일 열린 개소식에는 서교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 서유성 순천향대 종양의료원장, 박형국 병원장, 최미영 노조위원장, 문현준 권역응급의료센터장 등 내부 인사와 충남도의회 정병인·양경모 의원, 김홍집 충남도청 보건정책과장, 이현기·윤광분 천안시보건소장, 오경진 천안동남소방서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권역응

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와 재난대비·대응을 위한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이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지난해 5월 선정됐다.

이후 10개월에 걸쳐 인력·시설·장비 확충을 거쳐 지난달 8일 최종 지정 통보를 받았다.

응급진용 수술실, 음압격리실, 재난·응급 의료지원실 등이 추가되고, 응급전용 입원실·중환자실

이 확충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지정 통보와 동시에 본격 운영을 시

작했다.

박형국 병원장은 “충청권 중증응급환자들이 빈틈없이 최상의 의

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응

급의료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

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천안시병 이성진 후보, 3無 유세활동…최소 비용으로 선거 완주하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가량 남은 가운데 이성진 개혁신당 충청남도 천안시병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유세활동 3부 원칙만큼은 지키면서 천안시민들께 공약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3부 약속은 새벽부터 스피커를 통해 소음을 발생하는 것, 선거차량으로 인한 교통불편, 길 거리 여

기저기서 아르바이트를 고용 유세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 후보가 국민 누구나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인부터 먼저

최소 비용으로 선거를 치러내겠다는 기획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2살, 100일 아이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나머지

는 밤로 뛰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일상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것에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후보는 TV연설회와 지역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천안의 미래는 아시아 창업밸리를 구축하는 것만이 경쟁력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략적 필수 선택이라며 ▲글로벌 창업특구 ▲창업특구 연계한 ‘천안국제학교’ 추진 ▲아시아 국제회의소’ 유치 ▲천안도심형 비아이오 클러스터 조성 등 구체적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후보는 “본 후보의 대표공약인 아시아 창업밸트 조성은 결국 아이들과 우리, 그리고 우리들의

부모까지 3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본전제이자 필수 요소”라며 “미래의 대한민국을 여는 가장 빠른 길을 천안시민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선택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아산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등 원활한 추진

노인 안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아산시는 지난 1일, 아산시청 의회동 회의실에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와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인 맞춤 돌봄 및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의 추진 현황 및 앞으로의 업무 추진 방향 등을 공유하고 대상자 발굴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119 응급 출동을 담당하는 아산소방서 담당자도 참석해 수행기관과 대상자 정보 및 연락처를 공유하고 업무 처리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인천 확인 ▲사회 참여 ▲후원 연계 등의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특화사업은 우울·온문형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사례 관리 ▲집단활동 ▲자조 모임 ▲생활교육 ▲우울형 대상자 의료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독거 노인 가구에 화재 감지기, 활동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자동 신고 및 응급 관리 요원에게 알려 신속한 구급·구조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태안해경, 연안 사고를 선제적 예방 위해

유관기관 합동 연안 안전점검



태안해경 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2일, 연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대산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소방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연안해역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동점검은 인증외 험 테트라포드 인근과 가로립만 갯벌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위험구역 현장을 점검하여 위험성 분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안전시설물 보완 등 개선 논의를 진행했다.

태안해경은 이번 연안해역 합동점검과 자체 위험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구역을 설정·제거하는 등 재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위험구역 판별과 인명구조 장비 활용과 같은 안전 시설물을 정비할 방침이다.

태안=김정현기자

논산소방서, 전국 소방뮤직 페스티벌 홍보



논산소방서(서장 김경철)는 제2회 전국 소방 뮤직 페스티벌을 적극 홍보한다고 3일 밝혔다.

전국 소방 뮤직 페스티벌 본선 경연 일자는 기준 5월 29일(수)에서 오는 6월 1일(토)로 변경되었으며 세종호수공원 매화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참가 대상은 전·현직 소방공무원 및 이용소방대원으로 기준 접수 기간보다 연장된 4월 21일까지 한국소방방송(<https://fire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참가자들에게는 소방청 장상 등 상장 10점과 상금 320만원 및 부상품이 수여될 예정이다.

논산=김성구기자

대전식약청, 관내 의료제품업체 대상

「의료제품 GMP 길라잡이」 서비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안영진, 이하 대전식약청)은 관내 의료제품업체를 대상으로 제조 및 품질관리(GMP)에 대한 사전 컨설팅 「의료제품 GMP 길라잡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의료제품 GMP 길라잡이」 서비스는 총청권 내 의약품 제조소가 증가함에 따라 2015년부터 시작했으며,

매년 20여 개 관내 의약품 제조업체가 첫째, 제조소 신축 및 개축에 관한 사항, 둘째, GMP 규정의 적용범위 등에 대해 길라잡이 상담을 이용하고 있다. 작년에는 22개 의약품 제조업체가 길라잡이 서비스를 요청했으며, 상당수는 제조업체의 경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 보완 이행 기간이 줄어 실제로 민원 처리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

대전식약청은 특히 「23년 9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정·시행에 따라 GMP를 도입하려는 의약품 제조업체의 많은 참여를 강조했다.

송병배기자

4월 발생 대형산불 43.8%…산불방지 총력 대응

청명·한식 성묘 등으로 입산객 많아져… 불법 소각행위로 위험 높아

최근 10년 간 발생한 대형산불 32건 중 4월에 발생한 산불은 약 43.8%인 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월은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절차한 대비가 필요하며, 지난해 청명·한식을 앞둔 4월 2일에는 동시에 35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같은 달 3일에는 역대 최초로 대형산불 5건이 동시에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행안부는 4월과 5일 청명과 한식 기간에 대비해 대형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형산불은 산림 피해면적 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을 지정한다.

4월에는 봄철 나들이와 청명·한식 성묘 등으로 입산객이 많아지고 한 해 농사 준비를 위해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불법 소각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이에 행안부는 산림청, 소방청 등 15개 관계기관과 17개 시·도와 긴밀히 협조해 봄철 산불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지난 3월 26일에는 이경행 행안부 청년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기관별 봄철 산불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산불 위험 지역에 대한 주민 대피계획을 사전에 절저히 점검하고, 발생한 산불이 시·군·구

자원으로 진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기관끼리 적극적으로 협력해 신속하게 진화지원을 동원해 진화하도록 했다.

또한 산불의 주요 원인인 소각 산불에 대해서는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입장과 자율방재단 등 민간과 협력해 마을 단위로 대면 홍보를 추진한다.

지자체에서는 불법소각 단속반을 운영해 입산통제구역, 산불취약 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드론·감시카메라 등 가용할 수 있는 장비를 총동원해 감시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환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 정부는 대형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절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림이나 산과 가까운 곳에서 불법 소각행위를 삼가고,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지원하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령소방서, 청명·한식

특별경계근무 돌입

보령소방서(서장 이상권)는 청명·한식 기간 대형화재 발생 대비를 위한 특별경계근무(3일부터 오는 6일까지)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소방공무원 250명, 의용 소방대원 783명, 소방차량 등 장비 51대를 동원해 식목 활동, 상춘객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을 낮추고 산불 등 대형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장 안전 점검 및 위험요인 사전 제거 ▲재난 대비 현장 대응태세 확립 ▲봄철 산불 및 부주의 화재 예방 캠페인 ▲국회의원 사전투표소 순찰 강화 ▲소방관서장 중심 현장대응 및 상황관리 등이다.



당진소방서, 자동화산소화기 설치 당부



소에 손쉽게 설치가 가능하다.

자동화산소화기의 종류로는 보일러실, 세탁소 등에 설치하는 '일반화재용'과 음식점, 디중이 용업소 등의 주방에 설치하는 '주방화재용', 변전실, 배전반실 등에 설치하는 '전기설비용'이 있으며, 용도에 맞는 자동화산소화기를 설치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자동화산소화기 설치 후에도 일반 ABC소화기처럼 압력계의 게이지가 정상압력(녹색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는 등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소화기가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시설로 동파우려가 있는 장소 등 다양한 장

당진=최근수기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다’ 나무심기

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7묘역 주변 임야 산철쭉 2천주식재



국립대전현충원(원장 황원재)은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지난 2일 독립유공자 제7묘역 주변 임야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나무심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독립유공자 제7묘역 주변 약 400m에 산철쭉 2000주를 심어 유기족 등 대전현충원

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푸르른 산림의 아름다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열린 호국공원’으로 거듭나고자 추진했다.

황원재 원장은 “앞으로도 자연친화적인 복거리를 더욱 확충해 국민들이 즐겨 찾는 호국공원으로 거듭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청양소방서, 4월 중 직장교육훈련 실시

청양소방서(서장 진용만)는 지난 2일, 전 직원 대상으로 직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직장 교육은 중대비와 산불 관련 주제로 관서장 특별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이어 MZ세대 갈등 해소 및 의사소통 강화를 위해 외부 강사를 초청해 내실 있는 교육을 진행됐다.

교통약자 대상… 투표소 왕복 이동 차량 무료 지원

대전교통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전화접수 통해 이용 가능



터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4월 5일·6일)과 투표일(4월 10일)에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투표소 왕복 이동 차량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자는 보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약자로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회원등록이 되어 있거나 신규

접수한 사람에게는

이용 가능하다.

터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4월 5일·6일)과 투표일(4월 10일)에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투표소 왕복 이동 차량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자는 보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약자로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회원등록이 되어 있거나 신규

접수한 사람에게는

이용 가능하다.

터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4월 5일·6일)과 투표일(4월 10일)에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투표소 왕복 이동 차량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자는 보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약자로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회원등록이 되어 있거나 신규

접수한 사람에게는

이용 가능하다.

터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4월 5일·6일)과 투표일(4월 10일)에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투표소 왕복 이동 차량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자는 보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약자로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회원등록이 되어 있거나 신규

접수한 사람에게는

이용 가능하다.

터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4월 5일·6일)과 투표일(4월 10일)에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투표소 왕복 이동 차량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자는 보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약자로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회원등록이 되어 있거나 신규

접수한 사람에게는

이용 가능하다.

터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4월 5일·6일)과 투표일(4월 10일)에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투표소 왕복 이동 차량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자는 보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약자로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회원등록이 되어 있거나 신규

접수한 사람에게는

이용 가능하다.

터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4월 5일·6일)과 투표일(4월 10일)에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투표소 왕복 이동 차량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자는 보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약자로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회원등록이 되어 있거나 신규

접수한 사람에게는

이용 가능하다.

한국교총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 즉각 중단해야”

교총 등 공적연금강화공대위, 1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가 참여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연금공대위)는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연금특위 공분회위원회는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공분회위원회가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에 ▲공무원연금 보험료 인상 ▲기준퇴직자 연금수령 액 동결(불가인상 미반영)이라는 항후 공무원연금 개악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문항을 슬쩍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지난 달 10일 공분회위원회 의제숙의단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정부와 당사자

가 대화기구를 구성해 개선안을 논의하도록 합의했는데, 공분회위원회가 이를 무시하고 연금동결 등 미합의 의제를 시민대표단에게 제시하며 개악의 여지를 깔아둔 것이다. 이에 연금공대위는 지난 달 28일 공분회위원회를 향의방문한 데 이어 1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종례 저지 결의를 밝혔다.

연금공대위는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연금개시연령을 65세로 늦추면서 정부와 국회는 별도 기구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서면합의까지 했지만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아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은 퇴직금이 민간의 6.5%~39%에 불과하고,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배우자 까지 제외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데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더 내고, 뺄 받고, 더 오래 내고, 늦게 받는 연금을 현재까지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연금동결을 언급하는 것은 몰상식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꼬집었다. 연금공대위는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연금개시연령을 65세로 늦추면서 정부와 국회는 별도 기구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서면합의까지 했지만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아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은 퇴직금이 민간의 6.5%~39%에 불과하고,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배우자 까지 제외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데도

도리어 연금 동결을 운운하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연금공대위는 “2015년 공무원연금 대타협 합의사항 이행 없이는 어떠한 공무원연금 논의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연금동결 등의 공분회를 추진할 경우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연금공대위는 ▲퇴직공무원의 연금한시적 동결 시도 즉각 중단 ▲공무원연금 보험료 인상 시도 즉각 중단 ▲2015년 대타협 합의사항 우선 이행 및 당사자 배제한 공무원연금 개악 논의 즉각 중단을 공분회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정복기자



금산교육지원청 ‘온하수를 여행하는 우리 기족’ 캠프 실시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법연)은 교육복지안전망구축사업 프로그램으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립청소년우주센터와 나로우주과학관에서 ‘온하수를 여행하는 우리 기족’ 캠프를 실시했다.



천안교육지원청, 충남소년체육대회 축구 쓱쓸이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은 2일 막을 내린 제52회 충남소년체육대회 축구대회에서 남초부와 남중부를 쓱쓸이했다. 3월 30일부터 시작된 축구대회는 보령시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남초부는 성거초등학교와 천안초등학교가 결승전에서 맞붙어 성거초등학교가 우승하였고, 남중부는 광풍중학교와 천안중학교가 경기를 진행해 광풍중학교가 우승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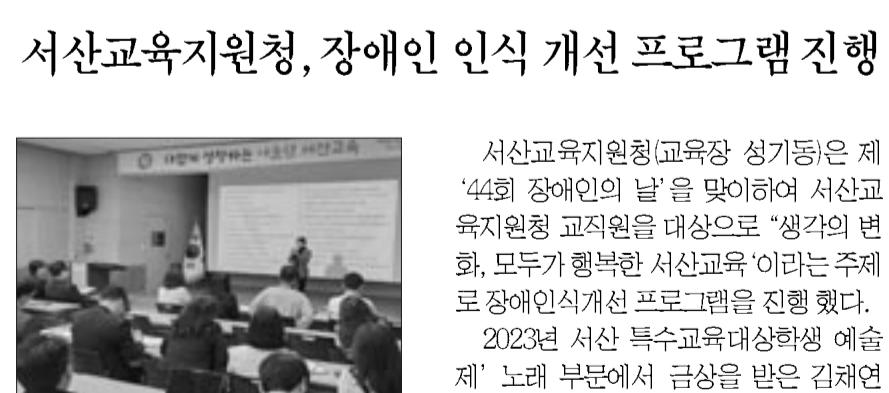
아산교육지원청 ‘마음 어는 청렴·소통’ 유대 강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은 3일, 교육장실에서 4월 생일을 맞은 직원들과 함께 ‘마음을 어는 청렴·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소통의 시간에서는 생일을 맞이한 직원들이 모여, 형식에 얹지 않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서로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솔직하게 나누며 소통하고 마음을 어는 시간을 마련했다.



“모두가 하나되는 따뜻함으로 봄을 맞이하는 자리”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은 지난 2일,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교육 지원 연수를 실시했다. 관리자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하고 통합교육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수업에 대한 이해 증진 기회를 제공하고자 실시했다.



부여교육지원청, 어린이통학버스 현장 안전점검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은 4월 3일~4일 이틀간 관내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통학버스 점검 및 운행노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서산교육지원청, 장애인 인식 개선 프로그램 진행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성기동)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서산교육지원청 교직원을 대상으로 “생각의 변화, 모두가 행복한 서산교육”이라는 주제로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23년 서산 특수교육대상학생 ‘예술제’ 노래 부문에서 금상을 받은 김채연(서산서남초등학교) 학생의 “모두 다 꽃이 야” 노래를 시작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한계를 넘어 당당한 수영 선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 세진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양정숙 강사님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서산교육지원청은 4월 한 달 동안 접수명집제작 주간 운영, 장애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성기동 교육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을 받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4월에 진행될 다양한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서산=김정한기자

당진교육지원청, 당진

외국어교육센터 캠프 시작

당진교육지원청은 지난 1일, 당진외국어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초등영어 일일캠프와 당진교육지원청 내 시설을 활용한 외국어 방과후캠프를 시작했으며, 3일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초등 외국어 캠프’가문을 열었다.

원어민영어교사(3명)와 중국어 강사(1명), 겸임교사(2명)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 중심 외국어 및 외국 문화 교육의 장을 활짝열고 있다.

한편, 지난 2일 초등영어 일일캠프에 참가한 탑동초 학생들은 원어민 교사와 함께 실제 주어진 상황에 대해 영어로 해결하는 활동에 참여해, 서로의 생각을 영어로 묻고 답하는 활동을 통해 영어와 더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중등영어 캠프’와 ‘3월 글로벌캠프’도 운영될 예정이며, 방학 기간에는 별도의 영어, 중국어 캠프가 학생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체험을 통한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교육 활성화로 당진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당진=최근수기자

세종시교육청, 세월호 10년의 기억들 “잊지 않겠습니다”

오는 26일까지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의 달’ 운영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오는 4월 26

일까지 세월호 추모 기간을 운영한다.

세종시교육청은 4월을 ‘기억의 달’로 지정하고,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 속에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로 추모행사를 운영할 방침이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과 교원을 추모하기 위해 대전현충원 순직 교사 묘소 참배, 안산 416 기념전시관 방문, 교육청 전 직원 북녘 및 추모 시 낭송,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기여공간 운영 등 여러 추모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에 추모 배

너 게시, 노란 배지 달기, 추모 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여 세월호 참사 10년의 기억을 되새기고자 한다.

특히, 세종시교육청은 18일(목)에 세월호 기족들로 구성된 416기족 극단인 ‘노란리본’을 초청한다.

‘노란리본’은 세월호 기족들이 지난 10년간 걸어온 여정을 연극제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세종시 각급학교에서도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교육, 등굣길 노란리본 달기 운동 등을 실시한다.

세종=김태선기자

2025 충청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확정 공고

충남교육청, 소아당뇨 학생 지원 위해 제1형 당뇨 우선배정

신설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 반영한 고입전형 계획 발표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충남의 교육환경 변화와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한 정책을 반영하고 개정된 초·중등 교육법과 관련 법규를 적용한 ‘2025학년도 충청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추가된 ‘제1형 당뇨 우선배정’은 전국 최초로 2025학년도 천안과 아산

등 새롭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반영하였다. 이외에도 교육감전형 아산학군에 아산중부고등학교가 개교(2025. 3. 1.)됨에 따라 학교선택 폭이 넓어져 학생들의 안정적인 고등학교 진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진행되며 ▲전기에는 외국어고를 제외한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일반고(특성화학과) 입학전형이 실시되고 ▲후기에는 일반고, 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의 입학전형이 실시된다.

김정환기자

예산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위원 위촉 및 제1차 협의회

특수 교육 협의실에서 장애학생 인권 보호 및 지원 위해 개최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하)은 2일

예산 교육 지원청 별관 1층 특수 교육 협의실에서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한 2024학년도 예산 장애 학생 인권 지원 위원회를 위촉하고 제1차 장애 학생

교育 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 상담 전문가, 장애학생 보호자, 특수 교육 지원센터 담당자 등 각 분야별 지역 내 전문가 12명을 위촉하여 인권 지원단을 구성했다.

본 협의회는 ▲2024학년도 장애 학생 인권 지원단 운영 협의 ▲2024학년도 정기 지원 일정 협의 ▲더불어학생 선정 및 지원방안 협의 등을 도모하고, 1년간 장애 학생 인권보호 및 학교(성)폭력 예방을 위한 장애 학생 인권 지원단 활동을 할 예정이다.

김종하 교육장은 “장애 학생 인권 지원단 활성화를 통해 장애 학생 인권보호 및 학교 폭력과 성폭력 예방에 힘써 함께 행복한 예산 교육 기관이 되도록 하고, 인권 지원단의 활동과 지역사회 연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예산=박제희기자

청양 정산중, 단위학교 성과평가 3년 연속 최우수교 선정

2023년도 단위학교 성과평가…충남 도내 중학교 142개교 중 1위

정산중학교(교장 임종필)가 도내 142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2023년도 단위학교 성과평가에서 1위에 해당하는 최우수 학교부서에 선정되었다.

충남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성과평가는 성과관리를 통한 개인의 역량과 조직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성과평가에 서도 교직원들이 협력하여 이룬 성과”라고 말했다.

‘마음버스’ 사업은 오는 6월까지 월 1회 평생청소년문화센터 앞 마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청소년 뿐만 아니라 대전 지역 청소년이며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송병배기자

력도 등이며, 단위학교 업무노력도 평가는 연구활동, 예산집행 현황, 학교운영 실태 등을 평가한다.

성과평가 유공 표창 대상자인 이지윤 주무관은 “3개 중학교가 통합된 학교로서 기숙사 운영,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설관리, 예산운영 등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교직원들이 협력하여 이룬 성과”라고 말했다.

임종필 교장은 “3년 연속으로 최우수교로 선정된 학교는 본교가 유일할 것이

며 전임 서정분 교장을 중심으로 모든 교직원이 함께 이룬 성과에 감사하며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온실가스 감축' 축산농가 비용 지원

道, 축산분야 탄소중립 시범사업 참여 농가 모집…저메탄·질소 저감 사료비 지원

충남도는 오는 30일까지 '2024년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참여할 축산농가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 1월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축산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 가운데 하나로 저탄소 영농활동이

행비용을 직접 보전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축산부문 배출량 및 감축 목표는 2018년 940만 톤 → 2030년 770만 톤(2018년 대비 170만 톤 감축)이다.

시범사업 내용은 저탄소 기반 실현을 위한 저메탄·질소 저감 사료 급여에 따라 내용으로 한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 가운데 하나로 저탄소 영농활동이

행비용을 직접 보전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출되는 질소를 감축하기 위해 감축 효과가 큰 축종을 중심으로 저메탄·질소 저감 사료를 급여하는 이행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메탄 사료는 기존 사료 대비 10% 이상 메탄 저감 효과가 있다.

한국우·젖소에 저메탄 사료를 급여하는 경우 연간 각각 두당 2만 5000원, 5만 원을 지원하고 데지에 질소 저감 사료를 급여하는 경우 연간 두당 5000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반죽동물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와 기축분뇨로 배

시범사업에 관심 있는 축산농가 및 농업법인은 소재지 시군 축산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도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서산시 홍순광 부시장, 대호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현장 방문

충남 서산시

홍순광 부시장이 2일 대산읍 운리리 241번지 일원의 '대호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 등 제반 사항을 점검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홍순광 부시장은 현장에서 개발행위 조건 및 환경보전 방안에 대한 계획 이행 현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아산시설공단, 지상150M에서
'지구사랑 환경 사진전' 열려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이하 공단)은 다가오는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하여 2일부터 오는 7일까지 아산그린타워(천장대)에서 '제8회 지구사랑 환경사진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구사랑 환경사진전은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공유하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로, 올해로 여덟 번째 전시회를 맞이했다.

이번 사진전은 한국환경공단의 협조를 받아 2022~2023년 대한민국 환경사랑 공모전 사진부문 및 일러스트부문 수상작 60점을 전시한다.

김효섭 이사장은 "이번 사진전이 시민과 환경 간 소통의 폐개체가 되길 바란다"며 "관람객들이 환경보전 실천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탄동농협 문화센터 봄학기 개강

대전 탄동농협(조합장 이병열)은 코로나로 중단됐던 문화센터를 작년 7월 재개강한 이후, 2024년 문화센터 봄학기를 "서양미술의 이해와 감상"과목을 추가해 재개강했다.

봄학기 프로그램은 탄동농협 문화센터 대회의실에서 오는 6월 21일까지 진행되며 일본어, 펜송영어, 캘리그라피 등 총 7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센터 개강식에 참여한 한 조합원은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가까운 곳에서 수강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고 너무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이병열 조합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조합원과 지역민을 위한 탄동농협 문화센터를 개강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탄동농협은 언제나 조합원과 지역민이 어울려 활동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송병배기자

산림복지진흥원 위기청소년 자립역량 강화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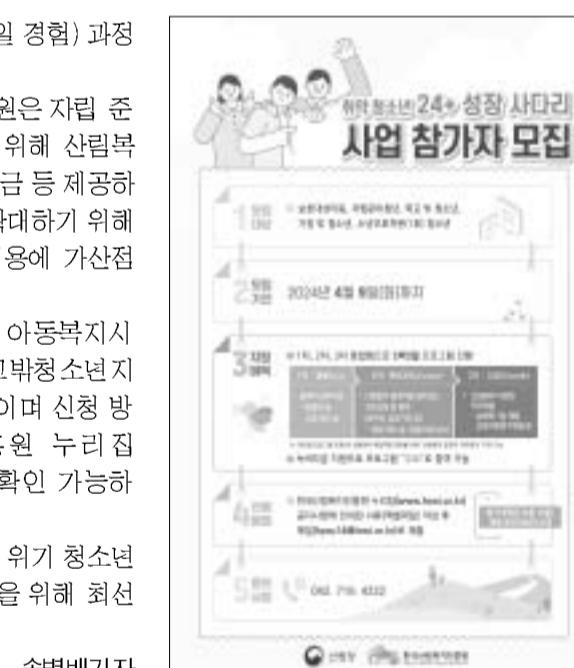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현)은 오는 9월까지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학업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 대상 '자립역량 강화 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작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보호 대상아동 및 위기 청소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청소년 콩(COG) 지원사업」을 315명(22년 2271명) 제공했다.

올해 진행되는 '24+ 성장 사다리' 사업은 보호 대상 아동의 시설 퇴소 연령이 만 18세에서 24세로 상향되는 정책 변화에 발맞춰 위기 청소년에서 자립 준비 청년까지 확대해 6000명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모집 대상 기관은 전국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복지기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기관 및 단체이며 신청 방법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누리집(www.fowi.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남태현 원장은 "앞으로도 위기 청소년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성장) 산림 분야 직무 체험(일 경험) 과정(2박 3일)이다.

특히,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자립 준비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산림복지전문가 자격 취득비, 장학금 등 제공하고, 실질적인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진흥원 체험형 청년인턴 체용에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 기관은 전국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복지기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기관 및 단체이며 신청 방법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누리집(www.fowi.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남태현 원장은 "앞으로도 위기 청소년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홍성군 건강한 임신·출산 위한 지원 확대

여성난소 기능검사·부인과초음파·남성정액검사·냉동난자보조생식술 지원

홍성군보건소는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과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홍성군에 거주하는 임신을 희망(준비) 중인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는 사업(1인 1회)으로 여성은 난소 기능검사(AMH)·부인과 초음파·검사비용을 최대 13만원까지, 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비용을 최대 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이 기임연령(15~49세, WHO 기준)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검사비 지원을 원하는 부부는 군 보건소의 지원 결정 후 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국 검사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 후, 홍성

군보건소에 검사비를 청구하면 된다.

또한 냉동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도 지원한다.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은 부부당 최대 2회, 회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항목은 냉동난자 혼동, 정자 체취, 수정·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부부는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 시술을 마친 뒤, 보건소에 시술비를 청구하면 된다.

김정식 보건소장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자녀를 계획중인 부부들이 건강한 임신·출산을 하길 바란다"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정환기자



당진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당진시는 지난 2일 당진 3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주민이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무보수·명예직 인적 안전망으로, 복지 사각지대 벌굴과 자체 지원 사업 연계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역량 강화 교육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한편,

복지역량 강화와 향후 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진=최근수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동정

선장 역사 문화제



박경기 아산시장
=4일 오전 10시
선장면 일원에서
열리는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선장
역사 문화제'에
참석.

기념식



오성환 당진시장
=4일 오전 9시,
대호지면 청의사
광장에서 '대호
지·천의장터 4.4
독립만세운동 본
기념식'에 참석, 오후 7시 30분, 문에
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4.4 독립만세
운동 기념음악회 <달의 춤>를 관
람.

현장 점검



기세로 태안군수
=4일 오후 2시 고
남면 장곡항 천수
만생 탐방로 조
성 사업지를 찾아
현장을 점검

개회식



김동근 청양군수
=4일 오전 11시
청양군 공설운동
장에서 열리는 제
28회 전국 게이트
볼대회 개회식에
참석.

농기계임대사업소 토요일 연장 운영
청양군 일손 부족 농업인들 위해 실시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가
본격적인 영농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
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4월부터 토요
일에도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문을 연다.
연장 기간은 오는 6월 29일까지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본소와 동부지소
2곳에서 운영 중인 임대사업소는 68종
812대의 농기계와 작업기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수요가 높은 트랙터용 풍과증
기 등 8종 42대를 최근 보강해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임대를 원하는 농업인은 2곳을 방문
하거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
화로 예약하면 된다.

토요일은 사전 예약된 농기계만 입고
와 출고가 가능하며, 일요일 사용한 장비
는 다음 날 월요일 아침 9시 30분까지 반
납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토요일 연장
운영을 통해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 경영비 절감에도 보탬이 되기를 기
대한다."라고 전했다.

청양=정상범기자

동정

선장 역사 문화제

삼교호 등 공공야영장 개장

당진시, 대 캠핑의 시대! 저렴한 가격과 시원한 바다 배경으로

당진시 공공야영장은 '웨목마을,
삼교호, 난지도'에 위치해 야영장
어디서나 서해의 아름다운 일출과
일몰을 바라보며 캠핑을 즐길 수 있
다. 당진시는 지난 31일부터 예약
사이트(<https://camping.dgto.or.kr/>)를
열고 4월 4일부터 이용객을 맞는다.

웨목마을 해수욕장에 위치한 오
토캠핑장은 석문산 옆 높은 언덕에
위치해 관광객들과 분리되어 조용
하고 한적한 분위기의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근처에는 '장고항
수산시장'이 있어서 신선한 해산
물을 맛볼 수 있으며 전용 산책로
를 따라서 서해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캠핑 명소이다.

또한 풍경 명소인 '삼교호 당진
해양캠핑공원'은 탁 트인 바다와
서해대교의 야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당진시 공공야영장 3곳 중 이 용객이 제일 많은 곳으로, 도보 5분

거리의 삼교호 관광지는 당진의 대
표 관광지로 23년 충남 내비게이션
검색 1위에 오르기도 했으며 최근
'대관령차 논류'로 이름난 'MZ 감
성 관광 핫 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다.

이 밖에도 항상 공원 및 해양테
마 체험관, 놀이동산이 조성되어
있어 가족 단위 캠핑족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있다.

'난지도 국민여가캠핑장'은 섬
에 위치해 배를 타고 들어가 캠핑
하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섬
특유의 여유롭고 한적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
며, 분주한 일상 속 난지도의 한적
함은 평화로움까지 느끼게 해 준
다.

당진=최근수기자

태안군 '제6회 충청남도지사배 전국보치아 선수권대회' 성료

최근 3년간 보치아 대회 5차례 열려… 경험 비탕 성공적 개최 호평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장애인 보치
아 선수들이 태안종합실내체육관
을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웠다.

태안군은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3일간 태안종합실내체육

관에서 개최된 '제6회 충청남도지
사배 전국보치아 선수권대회'가 전
국 장애인 선수들의 열정 속에 성공
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보도 자료를
냈다.

이번 대회는 충종장애인 전문스
포츠인 보치아의 보급 확대를 도모
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장애인보치아
연맹과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
충청남도장애인보치아연맹, 태안군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했다.

국내 보치아 여자선수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보치아 세부종목 중
여자 개인전만 진행됐으며, 장애 정도
에 따라 BC1~5 등급으로 나뉘어
경기가 치러졌다. 충남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선수·임원·보호자 등 약 270명이 참가해 자웅을 겨
뤘다.

종목별 금메달은 ▲부산광역시
흥승회(BC1) ▲충청남도 정소영
(BC2) ▲충청남도 최예진(BC3) ▲
충청남도 김유빈(BC4) ▲서울특별
시 김현경(BC5) 선수가 차지했다.
충남 선수단의 활약이 빛난 가운데,
태안군에서도 김옥선 선수가 출전
해 BC5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하

며 충남의 선전에 힘을 보탰다.

페릴리피 종목 종합 우승자인 보치아
는 공을 던져 표적구에 가까운 공
의 접수를 할 때 승패를 겨루는 경
기로,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과 운
동성 장애인만이 참가할 수 있는
종목이다.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 대회
를 개최한 태안군은 지난해 전국
보치아 선수권대회'와 '전국 보치
아 슈퍼리그' 포함 총 5차례의 보치
아 대회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시설을 정비하고 지역 외식업·숙
박업 관계자들을 만나 협조를 당부
하는 등 선수들이 최고의 환경에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 호평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대회 관계
자 및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
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비롯한
군민 누구나 불편 없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각종 시설 건립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
다.

태안=김정한기자

아산시 신창면 인구 '3만명' 돌파

아산시(시장 박경기) 신창면이
인구 3만명을 돌파했다.

아산시 신창면(면장 김인우)은
2023년 8월부터 신아산모아엘
가 비스타 1차(922세대) 입주를 시작
으로, 2024년 1월 신아산모아엘
가 비스타 2차(998세대), 2024년 2월
아산삼부로네상스더힐(1,016세대)
입주로 급격한 인구 증가 현상을
나타냈다.

이외에도 현재 공사 중인 ▲아산
광신프로그레스 450세대, ▲주택
사업승인 완료 1,738세대, ▲주택
사업승인 신청 3,290세대 등 추가
입주예정 아파트로 인해 약 12,030
명의 인구 증가와 함께 남성리 일
대는 대규모 주거지운이 형성될 것

으로 예상된다.

신창면 민원팀은 최근 인구 증
가에 따라 효율적인 민원행정 처
리를 위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 등을 처리
할 수 있도록 안내 리플렛을 제작
하여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배
부하였으며, 보다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국인 인구수 증가 외에도 신창
면은 4월 1일 기준 인구 30,161명
중 31.7%에 해당하는 9,552명이 외
국인으로, 충청남도 208개 읍면동
중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매달 약 50여 명의 외국인이 증



가하고 있으며, 1인 거주가 아닌 가
족단위 이동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내 통역 자원봉사자
(이사라 님)의 도움으로 자녀학교

등록 방법, 보육료 신청, 차량 이전
등록 등 언어로 인한 어려움 해결
에 도움을 주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군 지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력 강화 교육



청양군(군수 김동근)은 지난 22일,
군민과 사업장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력
강화에 나섰다.

이날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적
용 대상이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과
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공사 사업
장에 전면 확대됨에 따라 현장 및
총 직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초청된 한장현 '사람과

안전기술지도' 대표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정의와 적용 범위 ▲사업
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관련 행정제재 ▲산업
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
교 등을 실무적 측면에서 알기 쉽
게 설명했다.

청양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중
대재해처벌법이 전면 확대됨에
따라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라
며 "지속적인 인식 개선과 현장의
이행 여부 점검을 통해 사고 없는
청양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
다.

청양=정상범기자

우/리/동/네

아산시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실시

아산시는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계획에 따라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간 복지급여 대상자의 수급 자격 및 급여 적정성 관리를 위한 상반기 확인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확인 조사는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13개 복지급여 변동·증가 총 3,714건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65종의 공적 자료(소득·재산)를 활용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수급 자격을 재판정하게 된다.

특히 지속적인 소득·재산 변동이 있을 시 신고 의무를 안내하고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부(부)정수급 가구에 대한 보장 비용 환수·변환을 진행하는 한편, 조사 중 보장이 더 큰 급여(기초생활보장, 의료비) 해당하는 대상자는 급여 신청 안내 및 직권 신청을 통해 적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복지급여 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충분한 본인 해명 기회 부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활용, 타 복지서비스 연계 등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힘쓸 예정이다.

김은경 여성복지과장은 "복지급여의 기준이 완화되면서 매년 복지대상자 수와 복지예산이 증가하는 만큼 세심한 확인 조사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아울러 실질적인 위기구는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농번기 농촌인력 지원대책 추진

당진시 일손돕기 기관 운영·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등

당진시가 봄철 농번기를 맞아 농촌지역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
하기 위해 농촌인력 지원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농촌 일손돕기 지원대책을 시·읍면동과 농협에 설치해 운영하고,
공직자와 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은 ▲영세 고령농 ▲여성농
▲재해 농가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해 농가 일손돕기에 참여할 예
정이다.

또한 지역 내 모든 지역농협(12개소)에 총 1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농촌인력증개센터를 설치해 농작업지원단을 운영하며, 전년
도에 ▲1,588 농가 814헥타르(ha) 면적의 농기계작업반 ▲1,091
농가 48,813명의 인력지원반을 운영한 바 있으며, (사)당진시농업
회의소에서도 농촌인력증개센터 사업을 추진하며, 전년도에는
6,090명의 인력을 농가에 증개하며 일손 부족 해소에 큰 역할을
했다.

한편 당진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하며 농가 일손
부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2년 126명에서 2023년 707명
년도도 상반기 922명이 신청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2년
에 몽골과 리오스 지방정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2023년
15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했다.

당진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인력 부족 해소와 적기 영
농 지원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당진=최근수기자

이상기후 시 축산농가 대응법 홍보

청양군농업기술센터, 철저한 가축 관리 당부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가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 발생
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철저한 가축 관리를 당부했다.

기죽이 황사나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면 성장지연과 호흡기
순환기 질환, 눈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황사나 미세먼지에는 가축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세균이 평소보다 100
배, 꼴팡이는 6배나 많이 함유돼 한우의 경우 호흡기 질병 발생 위
험성이 평소보다 20% 이상 증가한다.

괴해를 막으면 가축을 축사 안으로 들어보내고 출입문과 환기
창을 닫아 외부 공기를 차단해야 한다.

또 가죽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관리하고 야외에 놓아둔
건초나 벗꽃은 반드시 비닐로 덮어야 하며, 관리 후에도 1~2주 동
안은

우리/동/네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용역 최종보고회 가져



부여군 제79회 식목일 기념행사 열려

“숲이 생활 속으로 들어옵니다, 탄소중립 우리길이 실천해요”

부여군은 지난 2일 임천면 철산리에서 제79회 식목일을 기념하는 나무 심기 행사와 더불어 탄소중립 캠페인을 진행하며 2045 탄소중립 실현 의지를 보여주었다.

올해 식목일 기념행사는 지난해 산불로 재해를 입은 지역에서 개최하여 산불의 위험과 산림훼손에 따른 피해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마련하였다.

행사에는 농림 및 사회단체, 부여군산림조합과 임천초등학교 학생,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여하여 3.7ha 면적에 편백나무 5,500주를 심었다.

또한, ‘반려 나무 나눔 행사’를 통해 목수국 500주를 나누어 주어 꽃나무를 기르고 볼 수 있는 기쁨도 함께 전달하였다.

나무 심기는 탄소량 증가로 인한 이상기후가 현실이 된 요즘 온실가스를 줄이는 저의 유일한 김축 원으로, 부여군의 경우 발생하는 탄소 총배출량의 1.8% 감축을 담당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30년생 소나무 1그루의 한 그루의 연간 탄소 흡수량이 6.6kg임을 고려하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산림보호와 녹지공간 확보가 더욱 소중해지는 이유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올해 조림 사업에 15억 원을 투입하여 233㏊의 산림면적에 편백나무 등 총 55만 그루의 나무를 4월 말 까지 심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늘 심은 5,500주의 나무는 연간 36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매년 탄소중립을 위한 나무 심기를 통해 탄소 흡수율 확보와 패색하고 살기 좋은 녹색 농촌을 만들어 가자.”라고 강조했다.

전통시장서 최대 30% 환급 받으세요

서천군, 국내산 수산물 구입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서천군이 4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4월 10일 제외) 장항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국내산 수산물 구매액이 3만 4천원 이상이면 1만원, 6만 7천원 이상은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으며, 행사기간별로 1차 4.6~4.12, 2차 4.13~4.19, 1인당 최대 4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 고객들은 구매처에서 영수증을 발행받아 환급장소인 장항전통시장 수산동 입구에 제출하면 되며, 환급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이다.



제22회 서천 동백꽃 주꾸미 축제 성료

서천군은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서면 마량진항에서 개최된 ‘제22회 서천 동백꽃 주꾸미 축제’가 22만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꾸미와 동백꽃의 만남’ 맛과 몇의 축제로 오세요~’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통통한 주꾸미 묘리와 화려한 동백꽃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관광객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평이다.

특히, 어린이 주꾸미 낚시 체험과 동백정 선상낚시 체험 등 가족 단위 관광객 맞춤형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으며, 주꾸미와 동백꽃을 함께 즐기기를 원하는 관광객을 위해서 축제장에서 동백정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해 관광객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지속적인 불편 사항으로 꾸준히 부족한 축제장 이용 안내 및 화장실의 경우 안내판 및 이동식 화장실 배치를 늘렸으며, 주차장 혼잡과 교통체증은 경호인력 배치와 서천경찰서의 협조를 통해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다만, 축제 기간 기상악화 및 주꾸미 어획량 감소로 인한 판매 단가 상승으로 주꾸미 가격에 대한 관광객의 불만족과 함께, 전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프로그램 구성 등이 아쉬웠다는 반응도 있었다.

논산시,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논산시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일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최종보고회는 논산시 상황실에서 행정·교육·국방 분야의 전문가와 이동대표 2명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 이전에 전문가 5명과 용역기관이 과학체험관 예정지

인 텁기향농촌테마공원 헬링생태 체험관에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전시체험공간의 배치의 효율성을 논의하였다.

이후 시정 상황실에서 지난 중간보고회 때 제시된 의견의 반영과 보완을 통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밀리테크 체험실에서 즐기는 다양한 군사과학 기술, ▲밀리테크 라운지에서 펼쳐

지는 관련도서 열람, 기획전시 및 강연, ▲아외파업스토어, 쉐터, 천문관측공간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체험분야에서 군번줄 형태의 RFID 스마트 태그를 통해 각 전시관의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이동들의 성취감을 고취시키는 형태의 기본계획에 포함되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어린이 과

학체험관은 아동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이동 중심 과학 테마 놀이터로써 충남 서남부권 첨단 과학 기초교육 중심 거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지역특화산업 및 국방 과학기술과 연계한 콘텐츠를 구성하여 논산시의 대표적인 4차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여군 군민의 정성이 모여 저소득층 치과 치료 지원

사비희망뱅크 모금액으로 맞춤형 기획사업 추진

부여군은 관내 65세 미만 저소득 취약계층 20명을 대상으로 4B희망뱅크를 통해 치과 치료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4B희망뱅크는 부여군, 부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충남공동모금회가 업무협약을 통해 개설한 부

여군 전용 모금 계좌로 부여군민이 후원하는 소액의 정기 기부금을 모아 관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부여군 맞춤형 자체 복지사업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난해에는 저소득 30명에게 치과 치료하였으며, 올해는 2천만 원을 배분받아 1

인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급여·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임플란트, 보철 등 치료를 지원한다.

부여군 저소득층 치과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부여군민의

정성이 모인 기부금이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삶의 희망을 나누고 누군가의 삶에 따뜻함을 선사한다”라며 정기기부에 참여하는 부여군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 공공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65세 미만 의료 취약 계층에게 치과 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도록 쭈촘한 복지안전망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이번 정식화 보좌관 위촉을 시작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를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추가 위촉하고, 이를 전문가의 자문을 미래 비전을 완성해 나가는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정식화 특별보좌관은 “계룡시는 풍부한 성장잠재력을 지닌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도시”라며 “그동안의 경험이 계룡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정우 시장은 “정식화 정책특별보좌관이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방수도 완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다양한 전문가를 정책과정에 참여시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정운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에 위촉된 정식화 정책특별보좌관은 충남개발공사 사장, 충청남도 재난안전실장과 국토교통국장 등을 역임하는 등 도시·건축·교통 분야에서 충남도 내 최고의 전문가로서 임기 2년 동안 무보수 명예직으로 파워풀 국방도시(국방·군사, 도시·건축·교통) 분야

시는 결산검사결과를 6월 중 시의회에 제출해 6월 제1차 정례회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검사 간 지적된 사항은 예산 집행·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계룡시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총괄 내역은 ▲예산현액 3714억 3000여만 원 ▲수납액은 3782억 6000여만 원 ▲지출액은 2726억 2000여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362억 5000여만 원이다.

계룡=김성구기자

계룡시 미래 3대 비전 완성 위해 정책특별보좌관 위촉

정식화 전총남개발공사시장 위촉·파워풀 국방도시분야 정책 자문



계룡시(시장 이정우)는 지난 2일 정식화 전총남개발공사 사장

을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논산시 농산물 안전성관리 업무협약 체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전한 농산물 위해 손 맞잡다



논산시(시장 백성현)와 국립농

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논산사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앙 정부 기관과 지방정부 간의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통해 논산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논산 농산물이 한 단계 진입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하며, “철저한 안전성 관리를 통해 논산시 농산물이 어디서든 최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진성귀 농관원 논산사무소장은 “농업은 국민산업이자 생명산업이며 공무원이 앞장서서 농업인을 지원하고 계도하여 농산물이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산=김태선기자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더 많은 난임부부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존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된다.

또한 시술 종류별로 횟수를 제한하여 지원했던 체외수정 시술비(기존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또한, 올해는 2월부터 시술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총 20회까지 확대 지원한다. 단, 인공수정 시술비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총 5회까지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율을 살펴보면, 난임 여성의 만 나이 기준으로 1회 시술을 기준으로 ▲체외수정(신선배아)의 경우 44세 이하 최대 11만원, 45세 이상 최대 9만원, ▲인공수정은 44세 이하 최대 50만원, 45세 이상 최대 40만원, 45세 이상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올해 4월부터 난임 진단 전 부부라도 냉동난자를 사용한 보조생식술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만원).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 인구감소 해결에 일조하고, 난임부부의 출산에 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올해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며, “난임으로 고민하는 부부들께서는 부담없이 문의해달라”고 말하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더욱 자세한 사항 및 기타 문의사항은 모자보건팀 (041-746-8064)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정

교육

박정현 부여군수= 4일 오후 14시 부여군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로컬푸드 관리 직장 출하농가 2차교육에 참석.

회의

김기웅 서천군수= 4일 오전 9시 군청 주민소통실 4에서 열리는 서천특화시장 화재 복구대응 점검회의에 참석.

계룡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예산집행 합리성과 재정운용 성과 분석

계룡시(시장 이정우는 2023회계연도 일 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4월 8일부터 26일까지 19일간 진행되는 이번 결산검사는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재정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한다.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계룡시(회) 조광국 의원(대표위원), 김세겸 전 계룡시 안전건설국장, 김진석 세무사, 최옥환 전 충남도 고위공무원 등 4인이 시의회로부터 선임됐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등의 사항을 검사한다.

시는 결산검사 결과를 6월 중 시의회에 제출해 6월 제1차 정례회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검사 간 지적된 사항은 예산 집행·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계룡시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총괄 내역은 ▲예산현액 3714억 3000여만 원 ▲수납액은 3782억 6000여만 원 ▲지출액은 2726억 2000여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362억 5000여만 원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대폭 확대 지원 실시

논산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횟수 확대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올해부터 난

순천향대, 충남 사립대 연구실적 3년 연속 1위

2023 SCI급 논문 수 395.9건



국제 논문실적인 SCI급, SCOPUS 실적은 지난 3년간 산출점수, 1인당 점수 모두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전임교원 1인당 논문 점수는 0.419로 전년 대비 3.6% 향상된 양상을 보였다. 또한, 대학 교원의 1인당 교외 연구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임상 교원의 1인당 교외연구비는 각 병원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과제 증가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학술융합연구지원사업을 운영해, 현재 3인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된 디자제간 융합연구팀을 대상으로 서면발표평가 등 심사를 통해 선정된 집단·선도 연구과제에 총 155억 원 규모의 선행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메디-바이오, 모빌리티, 탄소 중립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Target 국책사업 중심 학 1위의 연구중심 거점 대학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순천향대는 글로벌 연구 거점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BK Four 혁신인재양성 ▲G-LAMP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보스턴코리아 혁신연구지원 등 주요 대형 국가 연구개발사업 추진 지원에 박차를 기하고, 연구자 필요에 따른 맞춤형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해 대학 특성화-지역혁신을 위한 초대형 연구 기획 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글로벌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연구주진위원회와 전담부서 신설 등 글로벌 공동연구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한국뇌연구원 한국뇌은행 · 존스홉킨스대학과의 글로벌 공동 연구 ▲하버드 조슬린 당뇨병 센터와의 GRP(글로벌 레지던트 프로그램) 관련 MOU 체결 등을 진행했다. 연구자 행정 부담 경감 및 혁신적인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실적 입력 간소화 ▲연구행정 매뉴얼 리뉴얼 ▲IRB 전산 시스템 구축 ▲Paperless 연구행정 구현 ▲공동기기원 운영 활성화 정책을 수립한 점도 눈길을 끈다.

대학은 이러한 안정적인 연구 지원 정책

을 바탕으로 지난해 과학기술 분야 기초연구사업 집단연구 신규과제에 비수도권 대학 중 유일하게 ▲MRC(Medical Research Center, 기초 의 과학 분야) ▲CRO(Convergence Research Center, 융합연구분야) 등 두 개의 대형과제에 선정됐으며, 다학문적 융합연구를 바탕으로 현대 의학의 난치병 치료, 장애아동의 안정적인 발달 도모 등 국가적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편, 순천향대는 지난해 '2024 QS 세계 대학평가' 세계 1001위~1201위를 달성하고, '2024 THE 세계대학평가'에서 세계대학 순위권(1201~1500), 국내 대학 28위에 올랐다. 또한, '2024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에서 3년 연속 세계 200위권에 올랐으며, '건강과 웰빙' 분야는 국내 1위, 세계 25위를 달성해 충남 1위 연구중심 대학에서 나아가 글로벌 명문 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산불진화, 로봇 기술융합으로 최첨단화 '성큼'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상 선정, 산불진화인력에 로봇 보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대형산불 위협이 높은 동해안 지역에 위성항법장치(GPS)가 부착된 '산불진화 웨어러블 로봇'을 보급해 산불진화 역량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산림청은 연구개발비 2억 원을 투입해 산불진화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과 진화역량을 강화하는 '산불진화 웨어러블 로봇(STEP-UP)'을 개발했다.

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12월 '산불진화 웨어러블 로봇(STEP-UP)'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했으며 조달청은 지난 2일 조달정책심의회에서 정책수요형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동해안 등 대형산불 위험지역 산불특수진화대원에게 산불진화 로봇을 보급해 대형 산불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정복기자



청양교육지원청, 2024년 청양 특수 교육지원센터 중등 직업전환교육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진기성)은 3일, 포도공주농원에서 관내 중등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전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직업전환교육은 포도공주농원에서 1년간 실시하는 10회기 프로그램으로서 '재배부터 판매까지'라는 이름에 맞게 학생들이 직접 포도나무를 지정하고 1년간 돌보며 종국에는 포도 수확과 판매까지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직업전환교육은 포도공주농원의 농촌지도사와 전문가들이 직접 가르치고, 학생들은 포도밭의 관리, 수확, 포장 및 유통의 전반적인 과정을 배움으로써 농업 활동을 배우고 더 나아가 농촌지도사의 기본 역량을 향상하여 이를 통한 자립과 사회 진출에 교육 목표를 두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열정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자세를 보이며,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앞으로 이들이 자립해 사회적으로 더욱 활동적인 일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과 자신감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양=정상범기자

한국서부발전, UAE 마스다르와 동반관계 강화

아즈반 1.5GW 태양광발전 적기준공 위한 전력회의 진행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은 국내 최초로 중동에서 수주한 대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 상대

과 아즈반 사업의 주요주주다.

서부발전과 마스다르는 아즈반 사업 외에도 UAE의 새 태양광 프로젝트인 카즈나(Kharsa) 15GW 사업, 그리고 수소·암모니아 생산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나눴다. 서부발전은 UAE 태양광발전과 연계해 만든 수소·암모니아로 오는 2030년부터 태안발전 본부에서 암모니아 헤스 발전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어 마스다르는 태안발전본부를 찾아 석탄기스회복합발전(CCOC) 등 화력발전 설비와 수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둘러보고 서부발전의 안전사고 예방, 설비 운영 기술을 공유받았다.

태안=김정한기자

이번 직업전환교육은 포도공주농원에서 1년간 실시하는 10회기 프로그램으로서 '재배부터 판매까지'라는 이름에 맞게 학생들이 직접 포도나무를 지정하고 1년간 돌보며 종국에는 포도 수확과 판매까지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직업전환교육은 포도공주농원의 농촌지도사와 전문가들이 직접 가르치고, 학생들은 포도밭의 관리, 수확, 포장 및 유통의 전반적인 과정을 배움으로써 농업 활동을 배우고 더 나아가 농촌지도사의 기본 역량을 향상하여 이를 통한 자립과 사회 진출에 교육 목표를 두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열정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자세를 보이며,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앞으로 이들이 자립해 사회적으로 더욱 활동적인 일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과 자신감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양=정상범기자

대전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컨설팅 지원단 운영

2학기 늘봄학교 전면 확대 대비 컨설팅단 협의회 실시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솔동호)은 내실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2학기 확대되는 늘봄학교의 안정적 안착을 대비하기 위하여 2일 방과후학교 컨설팅단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과후학교 컨설팅 지원단은 방과후학교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교사 25명과 교육전문직원 6명으로 구성되었고, ▲방과후학교

학교 운영계획의 적정수립 여부를 검토하고, 인근지역 업무담당자 간 정보공유와 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방과후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늘봄학교 실무인력을 컨설팅 대상으로 확대하여 2학기 전면 확대되는 대전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환기자

이번 협의회는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컨설팅 운영을 위한 내용 공유와 늘봄학교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단은 컨설팅을 통해 학교의 방과후

대전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상공회의소 순회설명회 개최

2일 대전상의 2층 대회의실… 회원사 대표이사 및 임원 등 60여명 참석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정태희는 지난 2일 오후 2시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회원사 대표 및 임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상공회의소 순회설명회'를 개최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최태원)과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인종주)이 합동으로 개최한 이날 교육은 중대재해 예방과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을 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정훈 강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방법 ▲사업장 스스로 하는 위



대비를 위한 제조업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회원사 임직원에게는 교육비 할인 서비스 혜택이 주어진다. 교육 일정 및 참가 신청 대전상의 기업서비스팀(042-480-3043)

송병배기자

이번 행사는 우수한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학습의 병행을 희망하는 대전지역 직업계고 학생 간 1:1 매칭을 위한 소통 창구의 장으로서, 일자리 창출 및 구인난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 내에는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되어 학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AI 모의면접은 물론 퍼스널 커리어 진단, 메이크업, 취업 컨설팅, 면허 특강 등 체험공간을 설치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2월까지 채용 제안서 등 일체의 서류를 이메일(ewngl2@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송병배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주서 '제96회 총회' 개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손희연, 이하협의회)는 2일 메종글래드제주 호텔에서 제96회 총회를 개최하고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를 제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건의했다.



제8회 나눔직무콘서트 개최대 대학자주로에서 제8회 나눔직무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해 재학생들에게 직무 컨설팅 · 졸업선택과 민족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직무콘서트는 고용노동부 대전시, 배재대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배재대 스마트ICT융합인재양성센터가 공동주최했다.



공주대 · 총동문회,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 촉구 위한 간담회 공주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설립 촉구를 위한 총동문회와의 간담회



당진시노인복지관 하모니카동아리 봄맞이 버스킹 '성료' 당진시노인복지관 주민의 하모니카 동아리가 지난 3월 29일, 노인복지관 관내에서 봄맞이 릴레이 버스킹 첫 주자로 공연을 진행했다. 트로트와 1940~60년대 대중 가요 등 9곡을 하모니카연주에 맞추어 복지관 회원들과 합창하며 춤을 추는 등 공연자와 관람자가 하나가 되는 신나는 시간이 되었다.



지구빵집, 이인하우스 원이들을 위한 간식 전달 지구빵집(대표 전상체)이 지난달 29일, 온양동 행복키움추진단(공동단장 우재원공판석)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이인하우스(원장 박준범)에 빵을 전달했다.

공주시, 모든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자전거로 열어가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친환경 관광 이미지를 위해 공주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 보험에 기입했다.

공주시 자전거 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해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자동으로 기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이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3월 17일부터 2025년 3월 16일까지 1년이며, 보상 범위는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사람과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대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의 시민이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피해 등이다.

지세한 사항은 통합접수센터(☎1899-7755)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정상범기자



대전교육청, 2024년 대전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참가선수 격려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3일 대전시교육청 김진수 부교육감이 '2024년 대전광역시 기능경기대회'가 열리고 있는 충남기계공고를 방문하여 산업제어, CNC밀링, 기계설계(CAD), 용접 등 대회 경기장을 참관하고 참가선수들을 격려했다.



우승정보대학·캐나다 현장실습 및 해외취업 본격 추진
우승정보 대학총장(이달영)은 지난달 26일 캐나다 해외취업 간담회 및 K-푸드소리전공, K-베이커리학부 졸업생 및 재학생 대상으로 캐나다취업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회·대전경찰,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4월 3일은 '4월 보행자 교통안전의 날'로, 신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탄방초등학교 앞에서 경찰,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는 물론 학생회 어린이 등 40여명이 모여 어린이 등굣길 교통지도 활동과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목원대 세팍타크로부, 전국대회 2관왕·김현수 최우수선수상
목원대학교(총장 이희학)는 세팍타크로부가 강원 횡성군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35회 전국 세팍타크로선수권대회'에서 퀴드(4인)와 레구(3인조)에서 우승하며 2관왕에 올랐다고 3일 밝혔다.



국기철도공단, 1사 1촌 미을 식목 및 농촌봉사활동 시행
국기철도 공단 이성해 이사장(앞줄 가운데)과 봉사단 40여 명이 3일 식목일을 앞두고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영동금강모지마을을 방문해 '철도건설적기이행 및 안전 확보'로 고객 최우선 경영 실천 의지'를 약속하는 기념수인 빙송(盤松)을 심고 블루베리망치기, 제초작업 등 부족한 농촌 일손돕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건협 대전충남지부, 제79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한국건강관리 협회 대전충남지부(본부장 장국진, 이하 건협 대전충남)는 지난 2일 제79회 식목일을 기념해 서구 산적동 산23-1일원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2년간 대전시 건축·도시·디자인 정책 종괄 조정 및 자문 역할 수행

제3대 종괄건축가에 이진숙 충남대 교수 위촉

대전시는 3일 종합대학교 제19 대 총장을 역임한 이진숙 <원쪽 사진> 교수를 대전광역시 제3대 종괄건축가로 위촉했다.

대전시는 2020년부터 대전시의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정책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종괄 조정·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종괄 건축가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진숙 종괄건축가는 충남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취득 후 일본 도쿄공업대에서 박사를 취득했으며, 1989년부터는 충남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이력을 쌓았다.



2020년에 제19대 충남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여 올해 2월에 4년의 임기를 마쳤으며, 현재는 충남대 스마트시티건축공학과 교수로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진숙 종괄건축가는 앞으로 2

년간 대전시 건축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과 주요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사업의 기획, 기본설계에 대한 종괄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건축 정책 관련 대전시 의사 결정기구

인 건축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도 함께 맡게 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만의 독특한 매력과 문화를 반영한 혁신적인 건축디자인 적용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종괄건축가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라며 "종괄건축가의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시가 디자인 일류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진숙 종괄건축가는 "앞으로 공공건축물 건립 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 적용으로 대전이 디자인 일류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내 삶에 한계를 두지 마세요" 백석문화대, KBS 이소정 기자 특강

백석문화대학(총장 송기신)은 3일 오전 10시, 교내 백석홀 소강당에서 KBS 이소정 기자를 초청해 '내 그릇 키우기 넘비는 데도'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소정 기자는 '지상파 첫 여성 메인 앵커'로 'KBS 뉴스 9' 을 약 4년간 진행했다.

강단에 오른 이 기자는 자신이 기자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는지, 어떤 장벽들을 넘어왔는지에 대한 경험들을 소개하며 강연을 진행했다.

IT 산업 심장 판교테크노밸리에 친환경 수열에너지 도입 첫삽

판교테크노밸리에 물을 이용한 친환경 수열에너지 도입



공급한다.

‘판교 641 프로젝트’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41번지에 주엔씨소프트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각각 글로벌 R&D센터와 업무 복합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4월 3일 기공식이 열렸다.

이 사업은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도권 사업자 중 첫 번째 사업이다.

수열에너지를 위한 온도가 여름철에는 대기보다 차갑고 겨울철에는 대기보다 따뜻한 온도 차 이를 에너지원으로 하여 건축물 등의 냉난방을 하는 친환경 물에너지이다. 도시 인근의 하천수 등을 활용하므로 전국적으로 보급이 확산되며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민간·공공·지자체 소유 건축물 등에 수열에너지 도입 시 설계·시공비 용 50%를 국고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2022년부터 추진하여 수열에너지 확산을 꾀하고 있다.

이정복기자

도공 대전충남본부, 대덕구와 ‘비래동 공영주차장 조성’ 협약

주차공간 부족해 불편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고충 해결 등

신규성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 본부장(원쪽)이 3월 대덕구청에서 최종규 구청장(오른쪽)과 비래동 공영주차장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한편 고속도로 유후부지를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공 대전충

남본부는 비래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개소에 편입되는 토지를 대덕구에 무상제공하게 되며, 대덕구는 대상부지에 공영주차장 조성 및 운영관리를 담당할 계획이다. 이올라 대덕구는 대전지역 고속도로를 아름답고 밝게 만들기 위한 고속도로 꽂길 조성에 함께 하기로 약속했다.

신규성 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고속도로 유후부지 등을 활용한 주민 편의



설을 확충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서울 광진구, 청양군

경로당급식사업 견학

서울시 광진구 직원들이 지난 2일, 청양군의 경로당 접심 지원 사업을 견학하고 돌아갔다.

청양군의 경로당급식 지원사업은 군내 생산 농산물 등의 식자재 꾸러미를 주 1회 선정된 경로당에 배송하는 사업으로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시범적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시간이 길수록 호응을 얻고 있으며, 군은 연차별로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날 광진구 직원들은 청양군의 경로당 공공급식 현황 설명 청취에 이어 지역활성화재단을 방문해 재단의 역할과 배송 과정, 배송 현장을 확인하는 등 전 과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양=정상범기자

아산시, 제2기 아산시 ‘맛객단’ 위촉

아산시는 아산시 맛집 SNS 서포터즈인 ‘제2기 아산시 맛객단’ 20 명을 선발해 지난달 29일, 위촉식을 가졌다.

제2기 아산시 ‘맛객단’은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아산시의 대표 맛집과 특화거리 음식점을 방문·시식한 후 그 후기를 SNS에 올리고, 자신만의 아산시 ‘숨은 맛집’을 발굴해 아산의 음식문화를 대내외

로 알리는 ‘SNS 서포터즈’ 임무를 수행한다.

블로그 위주의 활동을 운영했던 작년 제1기 활동에서 더 나아가 올해 제2기 아산시 ‘맛객단’은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릴스, 쇼츠 등의 콘텐츠도 다양하게 구성할 예정이다.

아산=리량주기자



예산군 추사고택, 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수선화 만개
예산군 관광 시설 사업소는 포근한 봄 날씨가 추사 고택을 반겨 주면서 수선화의 꽃이 만개했다. 추사 고택은 추사 김경희 선생이 사랑했던 수선화가 노란 물결로 화사하게 빛나고 있으며, 목련, 매화, 산수유 등 수선화 외에도 다양한 봄꽃이 어우러져 매년 많은 상춘객이 방문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전대학교(총장 남상호) 산학 협력단이 위탁 운영하는 대전광역시 디자인원스 협력단에서 ‘대전 초등 아동 돌봄의 질적 제고’를 위해 신규 디자인·돌봄센터 5개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는 돌봄 기관에 종사하는 관리자들이 돌봄 기관을 운영하고 돌봄 아동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돌봄 관리자 전용 앱을 개발하여 돌봄 현장의 불편함은 줄이고 대전 시민의 편리성이 강화됐다.

자세한 내용은 www.daejeoni.or.kr 대전형 아이돌봄 통합 플랫폼 “대전아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성환기자



손영란 시인의 '베로니카 아드리에'

상사화

긴 긴 세월
행여 오시려나
불 밝히 기다립니다

손영란 作

당신의 데딘 발걸음
훤히 오시라고
목을 늘어뜨린 그리움으로
민발치에 호통불 달아
드립니다



이애순 시인의 '연보라 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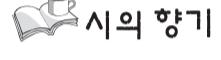
보릿빛 연가

오롯이 품은 마음
물음표 하나
슬며시 끼내들고
밖으로 나와

하늘 여행 즐기는
무지갯빛 구름에게
눈길 보낸다

하늘 여행 즐기는

무지갯빛 구름에게
눈길 보낸다
저만치서 달려오는
회오리 바람에
훌훌 벗어 날리는
내면의 세계
진보라색 회화의
눈물/상념 속 그 자유로움에 스며들어
늦가을 저녁놀 아래
안긴다



장문자 시인의 '님 그리는 달솔 연가'

보고파

못생긴 언덕길 오르내리면
그리운 친정집 넉두리 되어
서러움의 무늬가
방울방울 눈물이 주르륵

행여 임의 모습
꽃다unta 부푼 기습
그림자라도
서글픈 기습 덮어 주네요

눈물 것은 그리움 한 조각

햇볕에 말려볼까
지붕위로 날려볼까
하늘 잘 보인 숲으로 가자
한없이 불러보는 어머니
꿈에라도 봤으면
보고 싶어 타버린 애간장
소금으로 감추고
또다시 불러보는 이름
매아리도 구슬펴
온 동래 외치 내요
사랑한다고.



전소연 무용가의 '얼쑤 좋다야!'

이슬

숨소리 머금은 채
유영하더라.
숲속 안개비처럼

스치기만 하면 톡 꺼져버릴

거면서
커져만 간 눈물이
일렁일렁
애처롭게 혼들리더라.
일출이 숨을 터뜨리던
숲 거기서 방울방울 투명한
몸으로 자랐더라.

충남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조덕연, 송익찬 교수 연구팀

혈액학회 국제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수상

충남대학교병원(병원장 조강희) 혈

액종양내과 조덕연, 송익찬 교수 연

구팀이 최근 2024 대한혈액학회 국제학술대회(DKSH 2024)에서 '우수 논문상'을 받았다.

연구팀이 받은 '우수논문상'은 전년도에 대한혈액학회에서 출간하는 학회지인『Blood Research』에 출간된 논문 중에서 연구 결과의 가치가

'진성혈소판증가증과 일차골수성증'을 알고 있는 경우 폰 빌레브란트

문에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논문에서 연구팀의 저자들은 '골수증식증상'이 있는 환자들에게서 후천적인 '폰 빌레브란트 병'이 발생하는 특성에 대한 분석을 했다.

연구팀이 받은 '우수논문상'은 전년도에 대한혈액학회에서 출간하는 학회지인『Blood Research』에 출간된 논문 중에서 연구 결과의 가치가

'진성혈소판증가증과 일차골수성증'을 알고 있는 경우 폰 빌레브란트



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송익찬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교수님들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성공적인 환자 치료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덕연, 송익찬 교수팀은 혈액암의 치료 및 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한 실험 및 논문들을 다수 시행, 발표하고 있으며 혈액학 국내외 학술대회 활동을 통해 관련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역량을 쌓아 올리고 있다.

송병기자

“전국 최초 ‘빌트인’ 북 드라이브 스루로 책 빌려요”

보령시립도서관, 연중무휴 대출·반납으로 이용자 편의 증대

보령시립도서관에 전국 최초로 도입된 빌트인 북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이 이용객의 호응을 얻고 있다.

보령시는 코로나19 등 재난상황 대응 및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비

스루를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북 드라이브 스루는 비쁜 현대인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주차할 필요 없이 차에서 편하게 도서대출·반

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령시 도서관 누리집

(<https://brcn.go.kr/lib>)을 통한 회원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차량 또는 도보수령 방식을 선택하고 보령시립도서관에서 발송한 문자를 수신한 후 책을 대출할 수 있다. 차량 이용시 차 번호를 인식해 자동으로 도서대출이 진행된다.

이번 북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이

용자들이 도서관 운영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도서대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편의성 증진 및 도서대출율 향상에 기대된다.

이종문 문화교육과장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빌트인 북 드라이브 스루는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도입됐다"며 "이 시스템을 활용해 많은 시민이 도서관을 자주 찾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사설

하굣길 교통지도 인력 확대해야

어린이들은 몸집이 작아서 운전자 눈에 잘 띄지 않는 데다,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급하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날 위험이 크다. 실제로 어린이들이 많이 오가는 학교 근처에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스쿨존을 지정했다. 이 구간은 주정차를 금지하고 차 운행 최고 제한 속도 시속 30km로 정했다. 하지만 단속인력이 한정되다 보니 모든 스쿨존에서 제대로 단속하기는 힘든 게 사실이다. 더욱이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한 안전표지와 도로 반사경, 과속방지턱 등 시설 관리도 엄마이다. 교통당국의 단속인력 확대와 철저한 시설 관리가 요구된다. 아울러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서행 운전, 횡단보도 일시 정지, 주정차 금지 같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등굣시간보다 하교시간에 스쿨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학생들이 안전하게 하교하도록 교통지도 인력을 확대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5·6일 총선 사전투표, 적극 참여로 ‘낡은 정치’ 바꿔야

오는 5, 6일은 4·10 총선 사전투표일이다. 여야가 지지층 결집과 함께 사전투표 참여 독려에 나서면서 사전투표가 총선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만 갖고 익명·동·동에 설치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다.

사전투표율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전투표제를 총선에 처음 도입한 2016년 20대 총선에서 122%였던 사전투표율은 2020년 21대 총선 때 26.7%로 2배 넘게 올랐다. 사전투표율은 20대 총선 58%에서 21대 총선 66.2%로 뛴다. 2022년 대선 때 사전투표율은 36.9%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에선 투표 의향이 있는 유권자 중 사전투표를 할 것인 응답이 41.4%나 됐다. 지난 대선 때 '소쿠리 투표' 등 사전투표에 대한 논란에도 국민들의 사전투표 의향은 높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 삶을 보듬기는커녕 국

민들에게 걱정과 고통만 안기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21대 국회는 정치 혐오를 더 키웠다. 거대 이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탄과 탄핵 혐박 남발, '내로남불 정치'는 그렇지 않아도 경제 불황으로 힘든 국민들을 절망케 했다. 이번 총선에서도 정당의 이합집산, 공천 갈등, 막말과 부동산 투기 의혹, 선심성 공약 등이 정치 불신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런 '낡은 정치'를 끌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국민들이 적극 나서 궤도를 이탈한 정치를 심판해야 한다. 유권자의 힘은 투표에서 나온다. 투표율이 높아야 정확한 민의가 드러나고, 정치권이 긴장을 한다. 그 시작은 사전투표다. 높은 사전투표율은 본투표율을 끌어올린다.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부정선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CCTV 공개, 투표용지 수검표 확인 등을 도입했다. 그러나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되는 허점이 드러났다. 선관위는 조직의 명예를 걸고 투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신건강 역량강화 위한 실무자 교육 성료

예산군보건소, 정신질환 접근방법 및 상담기법 중심 교육 진행



진료소 등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강사로는 신동환 정신 건강 의학과 전문의(신동환 병원 원장)를 초청했다.

이날 교육은 '정신 질환의 이해 및 면담기법'을 주제로 조현병, 우울증, 양극 성정동장애 등 정신 과적 증상과 특징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특히 대상자의 심리적 원인 및 문제를 파악하고 면담기법을 활용해 정신 질 환자와의 치료적 목적을 위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교육 참여자는 "현장에서 일할 때 가끔 맞닥뜨리는 정신 질 환자에 대한 접근 방법과 상담 기법에 대해 고민이 있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정신질환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많아지는 만큼 현장에서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해 정신과 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중요하다"며 "이번 강의가 실무 담당자에게 유익한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 = 박제화 기자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E-mail: d-mail@hama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전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 · 비른신문

발행 · 편집인 김현정	회장 김성구	논설위원 김우영 · 김성식 · 김종복
전화안내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구독료 월1만 5000원

등록번호: 대전기 00017 인쇄처: 동양일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전투데이

16 2024년 4월 4일 목요일

대전투데이

진료과목

내과 | 외과 | 가정의학과 | 정형외과 | 이비인후과 | 물리치료



디딤돌유성의원
디딤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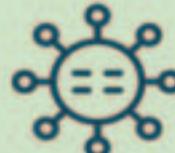
3월 4일 진료개시

유성온천역 4번출구 바로앞

지역주민분들을 위한 건강한 삶, 함께하는 기쁨
세심한 진료와 정확한 진단으로 진료하겠습니다.



각종
예방접종



물리치료실
운영



X-RAY실
최신검사장비



수액실
운영

| 진료시간 |

평 일: 오전 9:00 ~ 오후 6:00
점심시간: 오후 12:00 ~ 오후 1:00
토曜일: 오전 9:00 ~ 오후 1:30

문의 042.721.7505

| 오시는 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84, 레자미3차 205호 (유성온천역4번출구)